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金 呂 珠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溪巖 金垿의 詩文學 研究

2010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李 京 美

溪巖 金垞의 詩文學 研究

金 呂 珠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0년 5월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李 京 美

認 准 書

李京美의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論 文 概 要

溪巖 金垞은 1577년에서 1641년까지 살았던 조선 중기의 문인이다. 당시는 정치권의 朋黨과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國難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졌을 뿐 아니라 仁祖의 癸亥反正로 국정이 안정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宣祖 年間을 전후하여 文學的으로는 穆陵盛世와 道學的으로는 全盛期를 맞았으며, 詩文壇에는 宋詩風에서 唐詩風으로 바뀌어가는 전환기적 시점을 거치고 있었다. 黨爭과 士禍로 인한 정치적 불안이 조성되면서 구지배질서와 통치이념에 대한 반성이 대두되었고, 이와 함께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載道之器의 문학의 形式的, 觀念的인 면에 반발하는 思潮가 배태되었다. 새로운 思潮의 文學은 인간 心性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표현해내는 문학 방법론과 시문학 자체의 미학을 표출하고자 하는 의식이 드러나게 되었다.

계암은 退溪 李滉의 제자인 부친 雪月堂 金富倫을 비롯한 家門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道學에 入門하게 되어 도학자의 사명을 사회에 실현하고자하였다. 그러나 당시 광해군의 昏政과 北人들이 함부로 정권을 휘두르는 혼란한 시대상황 탓에 어쩔 수 없이 짧은 관직생활을 마치고 은거를 선택하여 선비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은거하는 도중에도 선비로서의 修己治人과 儒者의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하여, 병자호란이나 李适의 亂 등 나라의 위급함에 대해서는 鄉兵을 일으키는 등 그의 憂國衷情을 직접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계암의 德行을 추모하는 禮安의 선비들이 그의 死後 1771년(영조57) 가을 陶山書院에서 문집을 刊行하기 시작하여 이듬해 3월에 완간하였다.

그는 문학에 있어서는 도학적 학문관을 바탕으로 문학을 완전히 輕視하지

는 않았으나 도학을 우위에 두었는데, 詩가 가진 효용성을 인정하면서도 詩文과 學問에 있어서 本末의 구별을 한 것이다. 淸麗하면서도 典雅하다고 평가되는 계암의 시문학은 유자로서의 실천적 정신이 체득되어 형상화됨으로써 문학의식이 드러났고, 그 결과 주변사물을 관찰하여 託物寓懷 한 시를 지었다.

本稿에서는 계암의 시세계를 분석하여, 계암 시문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1)自我省察을 통한 儒者的 面貌가 드러난 시, 은거생활 중의 風流가 드러난 (2)安貧樂道の 隱者的 趣向의 시, 선비로서의 사회성이 드러나는 (3)批判的 愛民意識의 시, 호란 당시 나라의 위급함에 대한 울분과 우국정신이 드러난 (4)胡亂과 憂國精神의 시로 나누어 그의 시세계 전반을 규명하였다.

계암은 평생 은거하다시피 하였기에, 높은 벼슬에 오른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은 아니었지만, 도학적 인성 함양과 사회적 實踐을 통해 조선시대의 도학발전에 一助를 하였다고 評할 수 있으며, 선비로서, 유교사회의 지식인으로서의 책무성이 자연스레 몸에 체득되어 나타난 시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따라서 그의 시문학은 철저한 도학관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문학사적 의의는 宋詩崇尚思潮는 물러나고 차츰 唐詩崇尚思潮로 옮겨가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유학자적 면모를 가진 文人이자 선비로서 心性陶冶와 安民과 국가에 대한 愛情을 시문학에 나타냄으로써 조선중기의 한문학사적 흐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동안 집중 받지 못했던 溪巖 金垞의 시세계를 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17세기 초 그가 이룬 진면목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었다. 이를 통해 계암이라는 인물과 그의 시 작품에 대한 한문학적 위상이 提高되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한다.

目 次

論文概要

I. 序 論	1
1. 研究 目的과 意義	1
2. 研究 現況과 方法	2
II. 生涯 및 時代的 背景	5
1. 生涯	5
2. 時代的 背景	13
III. 學問世界와 文學意識	18
1. 學問世界	18
2. 文學意識	27
IV. 溪巖의 詩世界	33
1. 作品概觀	33
2. 作品分析	35
(1) 自我省察을 통한 儒者的 面貌	35
(2) 安貧樂道の 隱者的 趣向	47
(3) 批判的 愛民意識	59
(4) 胡亂과 憂國精神	68
V. 文學史的 意義	75
VI. 結 論	78

參 考 文 獻

ABSTRACT

I. 序 論

1. 研究 目的과 意義

溪巖 金崙은 조선중기 宣祖代에서 仁祖代까지 활동했던 학자이며 문인으로, 문학적으로도 재능이 있었으며, 사상적으로 道學에 정통하였다. 특히 인조는 그의 節義를 매우 높이 평가하여 稱病하며 벼슬을 계속 固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二十年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하여 벼슬을 除授하였다.

그는 벼슬길에 올랐지만 광해군의 昏政과 北人들이 함부로 정권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서 벼슬을 그만두고 隱居하였다. 그 후 山林에 묻혀 평생을 道學에 몸담았으나 병자호란이나 李适의 亂 등 나라의 위급함에 대해서는 鄉兵을 일으키는 등 그의 憂國衷情을 직접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계암의 德行을 추모하는 禮安의 선비들이 그의 死後 1771년(영조57) 가을 陶山書院에서 문집을 刊行하기 시작하여 이듬해 3월에 완간하였다.

그의 학문은 아버지 설월당 김부륵과 퇴계 이황의 영향으로 도학에 충실하였고, 문학에 있어서는 문학을 완전히 輕視하지는 않았으나 도학을 우위에 두었는데, 詩가 가진 효용성을 인정하면서도 詩文과 學問에 있어서 本末의 구별을 한 것이다. 淸麗하면서도 典雅하다고 평가되는 계암의 시문학은 주변사물을 관찰하여 託物寓懷한 시를 지었다.

천부적 자질이 총명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였으며 배운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을 목표로 하였던 도학적 성향을 바탕으로 한 그의 문학적 재능은 한문학사에 자리매김 할 만 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그의 학문세

계를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발휘한 그의 시문학 작품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그러나 계암에 관한 기존 연구는 그의 일대기와 시작품을 해석한 매우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그의 학문과 문학에 대한 유기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해명함으로써 계암의 시의 특성과 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생애와 시대적 배경을 살피고, 문학적 배경이 작품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는 학문 세계와 문학의식을 통해 문학형성의 근원이 되는 학문적 특성과 그의 의식 세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그의 문학의식이 시의 형식과 내용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살펴 조선중기 한문학사에서의 위상을 밝혀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계암이라는 인물이 새롭게 인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계암 김령의 시문학 연구는 그의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를 새롭게 밝힘은 물론 한국한문학사의 체계적 정립에도 一翼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2. 研究 現況과 方法

계암의 문학에 대한 선행 연구 성과는 아직 초보적 단계로서 전혀 연구가 되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 연구는 학술지논문인 황패강교수의 『계암 김령의 인간과 문학』¹⁾에서 계암의 일생을 고찰하고 그의 일생의 특징적인 사항을 언급하며 일생 전반을 살피고, 계암의 특별한 士 의식과 節義의식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1) 황패강, 『溪巖 金垞의 삶과 文學』, 퇴계학과 한국문화, 2001.
- , 『溪巖 金垞의 人間과 文學』, 퇴계학 연구, 2001.

따라서 이처럼 선행 연구 결과가 매우 부족한 것을 볼 때 계암의 詩文學에 대한 연구는 거의 全無 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그가 벼슬살이를 길게 하지도 않았고, 또한 벼슬을 그만두고 隱居를 시작하였으나 改善되지 않는 정치현실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계속되는 임금의 부르심을 피하고자 작품을 짓는 일을 그만 두었으며, 그나마 그동안의 작품도 남기지 않아 작품수가 적은 관계로 정작 그의 문학세계는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本稿는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에 이르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 도학적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려 애쓴 金垞의 삶을 알아보고 그의 시세계 속에서 드러나는 문학의식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제II장에서는 계암 문학의 형성배경을 생애와 시대적 배경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생애에서는 그의 삶의 전반적인 면을 살피고 특히 벼슬을 그만 두게 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시대적 배경에서는 당시 혼란했던 사회상을 살핌으로써 계암 시를 이해하는 밑거름으로 삼고자한다.

제III장에서는 문학작품의 근간이 되는 학문세계와 문학의식을 살펴 그 특질을 규명하고 그의 시세계를 이해하는 토대로 삼고자 한다. 특히 학문세계에서는 계암의 도학적 학문관의 특성을 살펴보고자한다. 그를 통해 그의 학문적 배경에 어떻게 발현되었으며, 또한 어떠한 문제의식을 표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IV장에서는 그의 시세계를 內容상으로 분류하여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으로 그의 詩世界 전반을 탐색하고자 한다. 내용상 분류에서는 自我省察을 통한 儒者的 面貌, 安貧樂道の 隱者的 趣向, 批判的 愛民意識, 胡亂과 憂國精神에 관한 詩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제 V 장에서는 앞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문학사 흐름 속에서 계암 김령의 시가 가지는 文學史的 意義를 밝히고, 제 VI 장에서는 결론으로 本稿에서 계암 시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後日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기본 텍스트는 규장각 장본 『계암집』(한국문집총간84집,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을 참고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II. 生涯 및 時代的 背景

1. 生涯

溪巖 金垚은 1577년(선조10) 8월 10일에 아버지 金富倫과 어머니 平山 申氏(申壽民의 딸)의 외아들로 漢城 鑄字洞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光山이고, 字는 子峻이며 1641년(인조19) 65세를 일기로 沒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그의 생애를 단계적 특성을 기준으로 시기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계암이 出仕하여 出處를 고심하여 은거하게 된 계기가 중요하므로 修學期, 出仕期, 隱居期로 나누었다. 그런데, 계암의 삶은 자료가 충분치 않은 관계로 行狀과 墓碣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修學期는 그가 36세에 과거에 합격하기 전까지이다. 溪巖은 어려서 기상이 뛰어나게 다른 사람보다 맑았다. 계암은 退溪를 섬겼던 아버지 金富倫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俗學이 아닌 正學에 뜻을 두어 家學을 이어받았다. 行動舉止를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이끄는 대로 하였으며 몸으로 體得하여 이미 5세에 글을 읽고 수 년 만에 經史의 뜻을 통달하는 등 日就月將하니 鄉黨에서 稱讚이 자자하였다.

그리하여 14세(1590년, 선조23)에 이미 문학으로 이름이 알려지고 陶山 書院에서 여러 유생들과 經義를 강론하였다. 그 때에 영남의 선비들과 함께 강론한 學識이 분명하고 조리가 있어서 여러 선비들이 저절로 감탄하며 많은 이가 따랐다.²⁾

2) 溪巖先生文集 卷六, 行狀, 權愈 “十四五 學問文章有聲名 嘗于陶山學舍 從嶺中多士遊 所講說明暢多中 腴 諸儒莫不聞然而服”

1592년 壬辰亂이 일어났다. 당시 相國 柳成龍이 體察使가 되어 영남에 府를 개설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찾아보였는데, 그 때에 우연히 明나라의 總兵 吳惟忠과 游擊 盧得功이라는 두 장수를 만났다. 그들은 계암을 맞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禮意를 갖추어 대하여 자신들은 大國人으로 자처하고 계암은 작은 나라의 선비로 대우하지 않았다. 이러한 계암의 당당한 태도 때문에 府中의 人士들이 기이하게 여겼다.³⁾

22세(1598년, 선조31), 23세(1599년, 선조32)에 부친상과 모친상을 차례로 당하였다. 겨우 冠禮를 지난 어린 나이로 연이어 큰 슬픔에 겪었으나, 초상을 치르고 執喪하는 일을 한결같이 禮를 갖추어 잘 처리 하였다. 葬禮를 마친 후에도 또한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고 매우 슬퍼하다가 병이 생겨 거의 죽을 뻔 했다. 3년 상이 지나도 여전히 슬퍼하고 부모님을 그리는 마음이 조금도 줄지 않아서 부모님의 살아생전의 모습을 하나라도 잊지 않았고 좋은 옷도 입지 않았다. 나아가 자신의 생일에는 精物을 부모의 祠堂에 바쳐 밤이 새도록 슬퍼하고, 그 후로는 생일을 축하하러 오시는 손님을 맞지 않은 채, 오직 정갈한 음식을 차려 부모 봉양으로 이 날을 보냈다. 그 사랑과 정성이 이와 같았으니⁴⁾ 그의 효심은 정말로 남달랐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그의 시 가운데에는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 한 시가 많은데, 寒食에 丁卯胡亂으로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을 표현한 「寒食 以兵亂 停祭」⁵⁾가 대표적이다. 한식날 先塋에 제사를 지내야 하나 전쟁

3) 溪巖先生文集 卷六, 行狀, 權愈. “時西厓柳相國爲體察使 開府嶺中 先生步行謁諸府下 偶逢皇明總兵吳惟忠, 游擊盧得功二帥 望見先生 敬逆與坐語 禮下之 不以大國人自居 而小邦士遇先生 既別 又爲書致意 其所自立者使然也 府中士莫不傳相語異之”

4) 溪巖先生文集 卷六, 行狀, 권유. “戊戌秋 雪月公歿 其明年春 母夫人歿 連遭內外艱 居喪葬祭 一由禮 毀幾 危身 既三年而悲慕不少衰 思其居處 思其所樂 無一事而忘乎耳目 不復服鮮衣 設孤之日 精物薦諸廟 哀愴竟夕 不復具酒邀賓客 以嘗洗腆於奉父母而樂是日也 其致愛致愨而著存焉者如此”

5) 溪巖先生文集 卷一, “墓祭本非古 後賢原人情 報本禮則然 仍以爲常經 云胡百五辰 奠酌違先塋 突騎城邑馳 烽火山河明 人竇方未定 泉壤亦靡寧 空感雨露濡 何由伸素誠 東風去年同 群物欣欣榮 病裏懷不佳 臥聽春鳥聲” (묘제는 본래 옛것에 근본 한 것 아니고, 후현이人情에 근본 한 것이네. 근본에 보답하는 예법 자연스런 것이라, 이에 몇몇한 법이 된 것이라네. 어찌 한식날 선

으로 인한 急迫한 정세로 황천도 마찬가지로 심란할 정도이니 감사한 마음만 가질 뿐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누워서 새소리 듣는다는 말로 무력함을 표현하였다. 이것 외에도 客地에서 본인의 생일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初度有感」⁶⁾, 福川에서 온 僧지영과 복천의 이야기를 나누며 아버지와의 추억을 생각하는 「思福川贈僧智永」⁷⁾, 滿月巖 벽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적어 두신 題名을 보고 그리워하는 「滿月巖」⁸⁾, 본인의 생일날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룬 것 없이 白頭翁이 된 자신을 생각하며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生日」⁹⁾, 10살 단오에 아버지를 따라 함께 왔던 응취루에 계암이 53세 단오에 다시 찾아 44년 전의 일을 쓸쓸한 감흥으로 설월공의 詩에 次韻한 「凝翠樓」¹⁰⁾, 한식에 병으로 성묘를 못가는 마음을 읊은 「寒食」¹¹⁾, 「生日有感書懷」 등이 생애 전반에 걸쳐 지어진 것으로 보아서 그의 孝心の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계암은 36세(1612년, 광해군4)에 과거에 합격하여 6,7년 동안의 짧은 벼슬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그의 나머지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전환점을 맞게 된다. 그는 文科에 丙科로 합격하여 權知 承文院 正字가 되었다. 鄉試에는 합격하였으나 복시에 올라 자주 낙방하였지만 언제나 뜻을 굽혀 시대에 적당히 맞추는 태도는 갖지 않았다. 이 기간을 出仕期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光海君은 卽位 初에 大北派 뿐 아니라 西人과 南人 즉, 당파를 초월해 고

영에 제사를 어길 수 있겠는가? 돌진하는 기병 성읍으로 달리고, 봉화는 산하를 밝히네. 인간 세상 바야흐로 안정되지 않고, 황천도 편안하질 않으니, 헛되이 우로에 젖음 느끼기만 하고, 무슨 수로 정성 펼치겠는가? 봄바람 지난해와 같아서, 만물 싱싱하게 번영하였는데, 병에 걸려 생각 아름답지 못하여, 누워서 봄 새소리만 듣네.)

- 6) 溪巖先生文集 卷二
- 7) 溪巖先生文集 卷二
- 8) 溪巖先生文集 卷二
- 9) 溪巖先生文集 卷三
- 10) 溪巖先生文集 卷三
- 11) 溪巖先生文集 卷三

르게 인재를 등용하였으며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진 조선을 復舊하고 大同法을 실시하는 등 많은 업적을 쌓았다. 그러나 1613년(광해군5)에 ‘七庶의 獄’으로 仁穆大妃의 부친인 金梯男과 永昌大君을 除去하는 등 임금으로서 不仁한 모습을 자행하였다. 게다가 점점 大北派는 그들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취약한 王權強化를 명목으로 서인과 남인을 축출하고 권력을 독점하는 등 專橫을 일삼았다. 그리하여 성리학적인 出處觀을 가진 계암으로서의 차츰 벼슬과 본인의 處世에 관하여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39세(1615년, 광해군7)에 注書가 되었는데 당시 복인이 부리는 권세를 보고는 탄식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幾微를 보고 행동하여야지. 어찌 종일 기다리겠는가?” 하고는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禮安으로 돌아가서, 다시 注書를 除授하여도 이르지 않았다. 儒者로서의 출처관이 분명했던 그로서는 당시의 광해군의 不仁함이나, 당파로 국가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위정자의 작태를 보고 조정의 신하로서 이 상황에 동참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물러나서 자신의 도학적 역량을 닦고 후진양성을 통해 훗날을 도모할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였던 것 같다. 결국 계암은 후자를 선택하여 은거생활에 접어들게 된다.

이후로는 세상과 인연을 단절하였으나, 임금은 거의 매년 벼슬을 제수하였고 계암은 한 번도 부름에 응하지 않게 되는데, 이를 隱居期라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마침내 1618년(광해군10) 1월 대북파가 彰德宮 뜰에 朝廷百官을 동원하여 仁穆大妃의 廢母要請을 하게 되었다. 이로써 8살 난 어린 아들 永昌大君과 친정아버지를 한꺼번에 잃고 王大妃의 지위마저 박탈당한 인목대비는 5년간의 긴 幽閉생활에 들어가고, 大北派는 이제 朝廷의 主導權을 완전히 장악했다. 하지만 동시에 대북파의 정권에 대한 반발도 커져갔고 廢母事件은 反正의

결정적인 명분이 됐다. 이 사건으로 서인 영수였으나 비교적 당파색이 열었던 李恒福은 인목대비 폐비에 반대하다가 함경도 복청으로 流配되어 광해군10년에 유배지에서 사망하였고, 복인과 같은 뿌리였던 남인의 영수 李元翼도 홍천으로 유배되었다. 심지어 광해군 즉위에 큰 공을 세웠던 복인 領議政 奇自獻까지 홍원에 유배되었다. 마침내 조정은 소수인 강경파 이이첨 등 극소수의 大北派가 장악했다. 이 때 42세였던 계암은 廢母論이 일어나자 이후 몇 년 동안 杜門不出하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도 時議에 부합하여 이익을 구하는 사람과는 交遊를 끊었다.

46세 壬戌(1622, 광해14)에 재차 承政院日記를 修正하라는 下旨에 따라 上京하였다. 命을 받고 서울로 올라오기는 하였으나 崇禮門 밖에서 수정할 승정원일기를 下吏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여 수정하고는 일체 都城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당시 계암은 서울에서 지내며 그 느낌을 4首의 五言律로 표현하였는데 그중 두 번째 首¹²⁾에 의하면 이미 고향으로 돌아가 은거생활에 들어간 계암에게 서울은 머무르기 괴로운 객지일 뿐이라고 표현하였다. 하루하루의 시간이 괴롭고 고향에 돌아가고픈 생각은 꿈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을 ‘흔쾌하게 물러가길 바란다.’며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47세(1623년, 인조1) 仁祖反正 후 成均館直講, 司憲府持平에 除授되었으나 上京하던 중 충주 달천에 이르러 일부러 말에서 떨어진 뒤 병을 핑계대고 돌아왔다. 그러자 上이 직무를 바꾸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는 조리한 후 올라오라고 하셨다. 이 당시의 일이 大提學 權愈의 溪巖先生遺事¹³⁾에 더

12) 『溪巖先生文集』卷二, 「漢城旅懷」 “客邊濡滯苦 一刻直三旬 長晝愁終日 良辰恨負春 林泉吟想切 花月夢歸頻 拙病唯甘退 誰爭野逸人” (객지에서 머무르기 괴로우니 일각이 한 달 같네. 긴 낮에 종일토록 근심만 하니 좋은 계절 봄을 놓친 것 한스럽네. 임천에서 읊조리고픈 생각 간절하여 꽃 핀 달밤 꿈에서 돌아가는 일 잣네. 못난 병 가진 늙은이 오히려 흔쾌하게 물러가길 바라니 누가 隱人和 다투리?)

13) 『溪巖先生文集』卷六, 「行狀」, 權愈. “癸亥 憲文大王返正 放光海于島 備法駕 奉大妃還宮 悉誅穢孽 亂國者 彝倫晦而明 宗社危而安 日陰未移 中外大定 以先生濁世獨清 陞拜直講 尋拜持平 引疾辭不赴 或曰 起行至中途 聞學義時說 遂歸辭免云 上不許 命調理上來”

욱 자세하게 기록되었다. 仁祖反正이 있고 먼저 持平을 제수 받아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鳥嶺을 넘던 중 舉義 소식을 듣고는 바로 歸家하여 며칠 동안을 食飮을 全廢하였다. 그러자 그 부인이 “무슨 병으로 먹지 않느냐?” 하고 묻자 “내가 무슨 병이 있으랴?” 하고 종을 물러가게 한 뒤 反正事件 이야기를 하였다. 그 뒤로 세수도 앓고 바지도 입지 않고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았다 누웠다 하며 2, 3년 동안 문 밖 출입도 하지 않았고, 6, 7년 뒤에는 일체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 그가 杜門不出하며 평생을 은거하고 해마다 내린 관직을 사양한 이유는 백이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사나운 임금이라도 신하된 자가 임금을 임의로 바꿀 수 없다.¹⁴⁾’ 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李光庭이 쓴 行狀에 “홀어미는 지아비가 의롭지 못하다고 그 守節을 고칠 수 없다.¹⁵⁾” 라고 하였으니 신하가 임금을 바꾸는 것은 不仁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며, 게다가 그러한 조정에 서는 것은 옳지 않다 여겼기에 스스로 稱病한 것이다. 行狀에서는 이것을 評하여 “孔子的 ‘독실하게 믿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道를 지킨다.’ 는 말씀을 오직 계암 만이 지켰고, 그가 병으로 사양하고 벼슬하지 않은 이유를 사람들이 그 뜻을 엿보게 할 수 없게 하였다.”¹⁶⁾ 고 하였다.

다음해(1624) 봄, 論功行賞에 불만을 품은 이괄이 서울을 侵犯하자 上이 공주로 피하고 나라가 크게 어지러워 宗廟와 社稷이 위험하게 되었다. 그러자 계암은 앞서서 일이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몸소 도성밖에 이르렀으나 盜賊들의 亂이 진압되었고 上은 다시 도성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¹⁷⁾ 계암은 光海君 初부터 이미 관직을 버리고

14) 『史記』 「伯夷列傳」, 司馬遷, 伯夷·叔齊 叩馬而諫曰 “父死不葬, 爰及干戈, 可謂孝乎? 以臣弑君, 可謂仁乎?”

15) 『溪巖先生文集』 卷六, 附錄, 「行狀」, 李光庭, “嫠婦不可以夫不義而改其守也.”

16) 『溪巖先生文集』 卷六, 附錄, 「行狀」, 李光庭, “夫子言篤信好學 守死善道 惟先生以之 而先生不仕之義 未可以形諸言語也 故辭以疾 既辭以疾 又不可使人關其意也.”

17) 『溪巖先生文集』 卷六, 附錄 墓碣銘 并序, 權愈 “逆适犯漢京 上幸公山 國大亂 先生以宗社危徒坐請免

落鄉하였고, 北人政權에 의해 仁穆大妃의 西宮幽閉事件이 일어나자 ‘세상의 紀綱이 아주 없어 졌다.’ 라고 탄식하고는 문밖에 나가지 않고 독서에 전념하였다. 더구나 인조반정이 여러 勳貴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알고는 병을 핑계로 다시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거기다 스스로 才德을 숨기려고 보던 책들은 그 곁장을 뒤집어서 오는 손님들이 무슨 책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친구간의 편지도 사람을 시켜 말로 전하게 할 정도로 자신의 글을 絶筆시켜 버렸다. 이렇게 철저히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던 그가 李适의 亂으로 승례문 밖에 이르렀다는 것은 국가의 危難 狀況에 신하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큰 결심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때에 쓴 칠언절구가 있다.¹⁸⁾ 첫 번째 首에 신하로서 해야 할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어 은거 생활 중에 나름 큰 결심을 하고 발걸음 하였으나, 결국 무의미한 행동을 하게 된 것에 대한 허망한 느낌을 썼고, 두 번째 首에는 이룬 일 없이 나이든 몸이지만, 이괄처럼 나라를 어지럽히는 무리들이 다 제거된 밝은 세상에 앞으로는 걱정 없이 은거 할 수 있겠다며 은거의 결심을 하였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는 長子를 시켜 病狀上疏를 하게하고 下鄉하였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안 司憲府 金時讓이 잘못을 따지며 말하기를,

“前 持平 金垚은 科擧에 합격한 사람이니 본디 山林에서 썩주기를 기다리던 선비가 아닙니다. 임금이 치욕을 당하면 신하는 목숨을 바쳐야 하니, 병이 있더라도 부축을 받아 달려와서 問安했어야 하는데 자기 아들을 보내어 태연히 상소하였으니 매우 외람됩니다. 그런데 聖批에는 지나치게 칭찬하여 마치 山林

非義也 起至都城外 聞賊平 上還都 乃歸”

18) 『溪巖先生文集』卷三, 「洛中書懷」 “平生隨遇信蒼天 狼狽吾行亦可憐 人事無端還一笑 終南巖嶂聳雲邊” “功名與病不相謀 疏懶無成已白頭 從此明時爲野逸 不妨江上弄沙鷗¹⁾”(평생을 상황에 따르고 하늘을 믿었는데, 낭패한 나의 발걸음 또한 가련하네. 사람 일 까닭 없으니 도리어 한번 웃을 뿐, 높고 험한 중남산 구름 가에 솟아있네. 공명과 병은 서로 상의하지 못하니, 게을러 이룬 것 없이 백두옹이 되었네. 이로부터 태평성세에 초야의 은자 되어, 강변의 갈매기 희롱하는 것 괜찮으리.)

의 고상한 賢者를 대우하듯이 하셨으니, 왕의 말씀이 한 번 전파되자 이리쿵저리쿵하는 소리들이 시끄럽습니다. 계암을 파직하고 成命을 도로 거두소서.” 19)

하니 上이 推考하라고 命하였다. 이후 6월에 典籍을 옮겨 刑曹 正郎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8월에는 義州 判官에 제수되었다가 다시 禮曹 正郎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계암은 증풍이 들었다고 핑계를 대어 관직에 나가기를 거절하고, 이후 집필을 끊었다.

그 후로 십여 년 동안 한해도 除授의 命이 없는 해가 없었는데 그 여러 벼슬들은 直講, 禮曹 正郎이 두세 번, 司諫院 獻納 겸 輔德으로 한번, 掌書, 輔德, 執義로써 두 번, 司諫으로써 7번을 불렀으나 모두 病을 稱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60세(1636년, 인조14)였던 겨울, 청나라 군대가 서울을 갑자기 쳐들어와 上이 남한산성으로 피신 하셨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리고 敵의 군사가 남한산성을 둘러싸고 각 道の 병사들이 와서 맞서 싸웠으나 모두 敗하는 등 정세가 매우 위급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자 고을안의 여러 선비들이 의병을 일으켜 구원하러 갈 것을 모의하였는데 이를 듣게 된 계암이 私財를 내어 軍糧을 후히 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해 봄 上이 항복하였다는 것을 듣고 계암은 통곡하고 슬퍼하고 분하여 이러한 감정을 詩文으로 적었다. 그는 이 일에 대해 ‘우리나라는 원래 禮義之國으로 불리며 大明에 큰 은혜를 받고 여러 해를 충성으로 섬겼는데 하루아침에 힘이 다하게 되어 개, 돼지에게 포위당하니 社稷에 부끄럽고 한 나라의 선비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皇朝를 섬길 수 없음을 부끄럽다.’ 20)고 통탄하였다. 이 해 가을 또

19) 『仁祖實錄』, 5卷, 2年(1624 甲子 / 明 天啓 4年) 3月 12日(丙寅) 1번째 기사. “前持平金垚, 科目中人, 本非山林待價之士 當此主辱臣死之日, 雖有疾病, 所當扶曳奔問, 乃送其子, 偃然陳疏, 極爲猥濫, 而聖批過獎, 若待林下高蹈者然, 王言一播, 物議譁然 請金垚罷職, 還收成命” 命推考”

20) 『溪巖先生文集』 卷六, 附錄 行狀, 權愈 “以我邦素號禮義國 受大明大恩 累世忠誠事之 一朝力屈 爲犬豕

司諫에 拜受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이후로부터는 朝廷에서도 계암의 뜻을 알고 다시 除授하지 않았고 65세(1641년 인조19) 3월 21일에 禮安에서 卒하였다.

훗날 1689년(숙종15, 강희28)에 睦昌明이 말하기를, “故 司諫 金垵은 영남의 어진 선비이니, 褒贈을 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였고, 이현일 또한 극구 이에 찬성하자 肅宗이 該曹에 명령을 받아 처리하라고 하여 마침내 都承旨를 贈職하였다.²¹⁾ 李象靖은 계암집의 序를 쓰면서 “계암 김령은 광해군 때 昏政에서 벗어나 人倫을 지켰으며, 인조반정 후 義理를 지켜 관직에 나가지 않았고, 병자호란 후 明나라를 위해 節義를 지킨 것, 이 세 가지 절의를 지켰다는 의미에서 東方伯夷로 불린다.” 라고 評 하였다.

2. 時代的 背景

溪巖이 활동 했던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전반은 對外的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明과 조선이 임진왜란으로 말미암아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을 때 만주에서 여진족이 강대한 세력으로 성장하여 後金을 건국하였다. 이 때 광해군은 外交에서 대륙의 힘이 변하는 상황을 읽고 현실적인 정책을 취하였다. 명나라가 후금을 치기 위해 조선에 援兵을 요청했을 때 광해군은 여러 구실로 出兵을 피하고 출병하더라도 압록강 연안에서 위엄만 과시할 뿐 국경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어쩔 수 없이 압록강을 넘어 만주로 출병하게 되자 도원수 강홍립에게 明장수들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독자적인 행동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1623년 인조반정을 통해

所藩 畜羞社稷 恥一國之士而不能終始事皇朝也”

21) 『肅宗實錄』 卷21, 15年(1689 己巳 / 淸 康熙 28年) 7月 21日, (乙卯)條

광해군을 몰아내고 西人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서인 세력은 反正을 정당화하고 집권의 명분을 얻기 위해 광해군과 大北 정권의 국내 정치 운영과 외교 노선의 잘못에 대해 거론하였다. 아울러 明으로부터 인조를 새로운 왕으로 認准받기 위해서도 광해군의 잘못을 늘어놓고 명나라에 대한 충성의 뜻을 보여주어야 했다. 당시 후금은 명나라 장수 모문룡이 평안도 철산 앞바다 椴島에 주둔하고 요동 지역의 회복을 꾀하는데 위협을 느꼈다. 또 후금은 명나라에서 물자를 수입하는 길이 끊어져 물자 보급은 조선에서 바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침 조선에서 李适의 亂이 일어나 후금이 조선에 쳐들어갈 수 있는 구실을 만들었다. 인조반정이 끝나고 西人들 사이에서 論功行賞을 둘러싸고 분열이 있어났는데, 이때 2등공신이 된 李适이 불만을 품고 亂을 일으켜 한때 서울까지 점령하였다가 곧 官軍에 의해 진압되었다. 그런데 그 殘黨이 후금으로 도망쳐 인조 즉위의 부당성을 호소하였다. 이에 침략의 기회를 노리던 후금 태종은 3만 군사를 끌고 1627년(인조5) 正月 조선을 공격하니 이것이 丁卯胡亂이다. 後金이 과죽지세로 南下하자 仁祖는 강화도로 피난하고 抗戰態勢를 갖추었다. 후금은 적은 병력으로 조선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꺼려 곧 강화를 제의하였고 조선 역시 軍備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인 항전이 곤란하였다. 조선은 兄弟之盟이 담긴 강화제의를 받아들여 두 나라의 외교가 다시 열렸다.

그 뒤 후금의 태종은 조선에 대하여 兄弟之盟을 君臣之盟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歲幣額을 크게 늘렸다. 이에 조선에서는 主戰論이 힘을 얻어 후금 사신을 접견하지 않자 후금과 다시 관계가 나빠졌다. 後金태종은 1636년(인조14) 국호를 淸으로 고치고 스스로 황제라 일컬으며 조선에 대하여 “왕자, 대신, 主戰論 主唱者를 보내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자 태종은 명나

라 정벌에 앞서 후환을 없애고자 12월 1일 12만을 끌고 조선에 다시 쳐들어왔다. 이가 丙子胡亂이다. 淸軍이 서울에 다다르자 왕족과 일부 관리들은 다시 강화로 피난하고 인조는 길이 막혀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抗戰을 피하였다. 그러나 청나라 군사의 포위 공격을 받아 城은 식량이 떨어지고 지방 援兵도 이르지 못하였으며, 강화가 무너져 王子와 妃嬪이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산성 내에서도 主戰 主和로 어수선한데다가 군인들이 주전론에 반대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인조는 삼전도에 나아가 항복의 禮를 행하였다. 이로써 조선은 청나라 요구대로 臣下의 禮를 취하고 조공을 약속하는 한편 명나라와 斷交하고 명을 칠 때 원병을 파견할 것 등을 약속하였다.

한편 經濟面에서는 농장의 확대와 같은 私的 토지소유 형태가 성행하면서 신분제에 토대를 둔 과전법 수조체제가 붕괴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토지를 잃은 농민층의 流民化 현상이 심해져 갔다. 게다가 전쟁으로 인하여 인구가 격감하였고 토지는 황폐해졌으며 생활의 기반을 잃은 농민층의 대대적인 流民化로 경작면적이 戰亂 이전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였다. 농경지의 감소는 국가 재정의 궁핍과 지배층의 정권야욕을 한층 더 부추겼고, 亂후에도 당쟁은 계속되어 민중들의 生活苦는 더 가중되었다. 게다가 戰亂뿐 아니라 연속된 기근과 질병의 만연 또한 민생을 위협하는 적이었다. 전란으로 과세근거인 호적과 양안이 대부분은 소실되었고 그로 인해 국가 재정약화와 수취체제의 문란이 초래되어 조선왕조 체제는 점점 약화되어 갔다. 이는 識者層으로부터 現實的 矛盾에 대한 批判과 革新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동기가 되었다.

學問的으로는 주자학의 目標인 治世의 구현은 有名無實化 되고 空理空談으로 흘러 주자학의 학문경향에 대한 비판 사조가 일어났다.²²⁾ 임진왜란과

22) 전형대의, 『韓國古典詩學史』, 「朝鮮中期的 詩學」, p.245~247, 기린원, 1981.

병자호란 후의 사회는 脫朱子主義와 함께 實學의 기풍을 일게 하여 통치 질서의 동요는 물론 정통 漢文學에도 새로운 文風이 제고되었다. 즉, 주자학이 현실을 떠나 有名無實한 풍조로 흐르는데 대한 새로운 학문적 경향이 서서히 일어났다.

文學的으로는 宣祖 年間을 전후하여 우리 詩文學史에 未曾有의 기라성 같은 문인들을 배출하는 穆陵盛世를 경험하였다. 시문단에서는 여말 성리학의 도입과 함께 읽혀오던 蘇軾 일변도의 宋詩風에서 서서히 唐詩風으로 바뀌어 가는 전환기적 시점을 거치고 있었다. 조선초기에는 왕조의 창업에 따르는 文物整備와 제도혁신 및 사회질서의 유지 등과 같은 혁신적 요구에 따라 詩의 議論面을 중시하는 宋詩를 본받아 배우려는 풍조가 강했었다. 그러나 조선 중기 당쟁과 士禍로 인한 정치적 불안이 조성되면서 구지배질서와 통치 이념에 대한 반성이 대두되었고 이와 함께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載道之器의 문학의 형식적, 관념적인 면에 반발하는 사조가 배태되었으며, 인간 心性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표현해내는 문학방법론이 제시되었다. 이렇게 시문학 자체의 미학을 표출하고자 하는 의식이 성장하였고 점차 고려 말 이래로 이어져 온 소동파와 황정건의 강서시풍에서 唐詩風을 추구하는 學唐의 흐름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문단의 변화는 다음의 金台俊이 『朝鮮漢文學史』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이러한 현상을 짐작할 수 있다.

“국초 이래로 전하는 蘇黃의 詩風은 중언하고, 순순히 唐을 배우기 시작하여 三唐을 필두로 車五山, 李五峰, 柳於于, 崔簡易, 權石洲, 李東岳이 나와서 문장 정중으로 象·月·谿·澤이 난 것도 선조 년간의 일이다. 대저 목릉성세에는 盧守愼, 李珥, 李山海, 李植, 金尙憲, 鄭弘溟 등이 문병을 잡으니 壬辰, 丁卯의 兩亂을 두고 이렇게 諸賢이 空前絶後로 쏟아져 나온 것도 기특하지만 그 이유를 찾으려면

- 1) 國內의 政勢가 점점 문화의 원숙한 기운에 든 것
- 2) 事大外交의 容儀, 科擧 制度의 엄시, 諸儒家 배출이 그 선구를 이룬 것
- 3) 明의 萬曆文化의 流入으로 인하여 明을 배우는 學明風潮도 고조 되었다. 23)

麗末의 流風을 계승하여 중국의 蘇東坡를 오로지 推仰하여 오던 鮮初의 宋詩崇尙思潮는 朴闇, 李荇을 마지막으로 소위 강서파 시풍이 물러나고 차츰 唐詩崇尙思潮로 옮겨가게 되었다. 三唐詩人을 비롯한 많은 學唐詩人을 배출하였고, 또 壬辰亂을 前後하여 明의 萬曆文化의 유입으로 인하여 明人을 배우는 學明風潮도 고조되었다. 삼당시인들은 律詩가 가지는 형식적 구속에서 벗어나 절구의 詩型을 통해 시의 함축적 기법을 자연스럽게 전개시킴으로써 시의 吟詠性을 확보하고 자연스럽게 인간 내면의 감정의 울림을 추구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어지럽고 복잡한 위기의 시대를 대면하여 살아가던 계암은 사회적, 경제적, 문학적인 시대 배경 하에서 과연 어떠한 신념으로 살았는지 그의 시문학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23) 金台俊, 『朝鮮漢文學史』, 朝鮮語文學會, 1931, p. 112~113

Ⅲ. 學問世界와 文學意識

1. 學問世界

계암 김령은 安東 禮安縣 烏川의 유수한 在地土族 중의 하나인 光山 金氏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계암의 부친 富倫(1531, 중종26~1598, 선조31)은 이황의 문인이 되어 1555년(명종10) 司馬試에 합격하였으며 1585년(선조18) 전라도 同福縣監을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家産을 털어 鄉兵을 일으켰고 奉化 假縣監이 되어 백성을 다스렸다. 金誠一·李潑 등과 더불어 道義를 연마하였고 晩年에는 향리에서 後進養成에 전념하였다.²⁴⁾

그리고 계암의 고향인 禮安은 조선중기의 영남학파의 중심인 退溪 李滉의 先代의 거주지이자 先塋의 소재이며 그의 고향으로, 이황이 49세에 고향에 내려온 이래로 남은 生涯 대부분을 이곳에서 讀書와 窮理에 힘쓰면서 著述을 남긴 곳이다. 따라서 이 지역 士林들에게 퇴계의 존재는 절대적 이었다. 이황은 309명의 門徒를 養成²⁵⁾하였는데 趙穆, 金誠一, 柳成龍, 鄭述 등이 주요 인물들로 이들과 이들의 제자들이 안동을 중심으로 16세기 후반 이후 近世에 이르기 까지 영남지방의 사상과 문화를 주도하였다. 조선후기 실학자 李重煥도,

경상좌도는 백성이 가난하여 군색하게 살아도 문학하는 선비들이 많다.(중략) 예안·안동·순흥·영천·예천 등의 고을은 二白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가 신이 알려준 복된 지역이다.(중략) 예안은 退溪 李滉의 고장이며 安東은 西厓 柳成龍의 고장이다.(중략) 이들 고을에 士大夫가 제일 많으며 모두 退溪와 西厓

24) 『溪巖日錄』, 「解題」, 국사편찬위원회, 1997.

25) 퇴계연구소, 『퇴계학맥의 지역적 전개』, 『陶山及門諸賢錄의 집성과 간행과정』, 보고사, 2004.

의 문하생의 자손들이다. 의리를 밝히고 道學을 중하게 여겨 외딴 마을 쇠잔한 촌락에도 글 읽는 소리가 들리고 도덕과 性命을 말한다.²⁶⁾

라고 하였으니 당시 예안의 분위기를 짐작할 만하다.

퇴계 생존 시 及門한 인물들을 제시한 『陶山及門諸賢錄』 의하면 당시 예안에는 광산 김씨 · 진성 이씨 · 봉화 금씨 · 영천 이씨 · 횡성 조씨의 다섯 집안이 예안 지역의 퇴계 학맥을 유지하는 주축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특히 계암의 집안인 光山 金氏의 집안은 아버지 雪月堂 金富倫과 설월당의 형제들인 金富弼, 金富儀, 金富仁, 金富信 등이 琴應夾, 琴應熏과 함께 도산서당에 출입하면서 학문과 經綸을 쌓아 당시 퇴계의 문하에서 높은 학식과 덕행으로 예안의 ‘烏川七君子’ 라고 불렸다. 그러므로 설월당이 아들에게 어려서부터 道學으로 이끈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계암일록』 「解題」 에 일화가 쓰여 있다. 14세였던 계암이 매번 부친이 잠든 후 말을 타고 안동 妓房에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오곤 하였는데, 이를 안 부친이 훈계하자 다시는 나아가지 않았으며, 그 기녀가 찾아와 한번만 얼굴을 보고자 하였으나 ‘부친의 訓敎가 있었는데 어찌 전과 같겠는가?’ 하고 문을 열지 않고 더 이상 평생 女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한다. 이 경우만 보아도 설월당이 계암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계암도 아버지의 뜻을 잘 따르며 같은 잘못을 두 번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인물이었음을 보여 준다. 실제로 『溪巖集』 에 특별히 아버지의 말씀을 「庭訓箴錄」 이라는 제목으로 11가지 조목으로 나누어 기록하곤 평생을 실천하였다.

먼저 계암의 학문적 기반인 도학의 개념을 살펴보면, 道學이란 윤리도덕의 당위성을 밝혀 안으로 끊임없는 자기수양을 통하여 正道를 실천하고, 밖으로 도덕정치로서의 仁政을 구현시켜 정의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天理에

26) 『택리지』, 팔도총론 경상도

근거한 실천적 성리학이다.²⁷⁾ 大義를 위해 생명까지 초월하는 전통적인 도학사상은 趙光祖에 의해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계속된 士禍로 많은 선비들이 희생되자 士林은 山水에 은거하려는 성향이 크게 일어났다.

특히 안동지역 학문적 특징은 첫 번째로 먼저 퇴계학설을 계승하여 「主理說」을 강조하였다. 인간존재의 普遍原理이자 當爲性의 근거인 理의 강조는 인간의 본성을 신뢰하는 가치기반 위에서 도덕정신을 高揚하는 장점이 있다. 즉 主理哲學은 天理에 근거한 人間 心性의 해명을 통하여 義理思想이나 주체적 인간성 회복의 이론을 확립한 데에 功績이 있다. 퇴계는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敬의 修養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인간의 내재된 순수성과 존엄성을 바탕으로 퇴계학문의 목표인 聖人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또 퇴계의 학문을 聖學이라고 하여 聖人이 되기 위해서는 自然에 沈潛하여 인간의 정서를 함양하고, 도학 정신으로 자연을 玩賞하고 物我一體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문적 사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거쳐 끊임없이 知行一致를 위해 실천하려하였다.²⁸⁾ 안동지역학문의 두 번째 특징은 안동 선비의 대부분이 政界에 나서기 보다는 山林에 은거하여 德行에 힘쓴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안동지역이 다른 지역에 比하여 山林이 隱居하여 쉽게 定着할 수 있는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與件도 무시할 수 없으나, 道學을 강조하고 끊임없이 벼슬에서의 은퇴를 自請한 퇴계의 영향도 크다고 하겠다.²⁹⁾

윤리도덕을 강조하고 내면적 수양에 힘쓰는 이러한 氣風은 물질적 名利에 타락하지 않는 清廉潔白한 人品이나 人格을 形成하고 또한 義理具顯의 基盤이 된다. 따라서 계암의 家風과 안동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계암의 思

27) 오석원, 『퇴계학과의 형성과 전개』, 동양철학연구 제7집

28) 上揭書, p.126 참조

29) 上揭書, p133

想的 背景과 文學的 背景도 이러한 특징을 가질 것이라 전제할 수 있다. 그 예로 『溪巖集』 「庭訓箚錄」에 “余覽詩冊 大人責之 使讀心經.” 이라 하였다. 퇴계는 20세에 학문적 관심이 ‘心’ 으로 傾倒되게 하였으며, 그의 학문의 핵심인 ‘敬’ 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준 『心經』을 읽고 道學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하였는데³⁰⁾ 門下였던 설월당도 이에 『心經』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계암에게 권했다고 생각된다.

우선, 계암은 道學에 대해,

臣 등은 들으니 道學은 나라의 원기이며 聖賢은 도학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위대 하도다, 원기여! 사람은 이 기운에 힘입어 태어났으며, 나라는 이 기운을 힘입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옛날 聖君과 明王은 元氣를 배양하는 것을 급히 할 일로 삼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道學이 밝아야 人心이 착하여지고 인심이 착해야 風俗이 아름다워지니, 아들은 아버지께 효도할 줄 알고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할 줄을 알며 선비가 되어서는 의리로써 聖王과 暴君을 분별할 줄을 알고, 백성이 되어서는 공손하고 온순하여 복종하는 예절을 알아서 人倫의 명분을 밝히는 가르침을 유지하고 사람의 기강을 도와서 세울 수 있사오니 세상에 백성이 생긴 이래로 무엇이든 道學에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³¹⁾

라고 하였다. 이 글은 계암이 1608년(선조41) 32세에 金宏弼 鄭汝昌, 趙光祖, 李彦適, 李滉 등 五賢의 문묘중사를 請한 경상도 儒生의 상소를 模擬하여 지은 글이다. 도학은 나라의 기본이 되며 이로 인하여 人倫이 바르게 선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儒家들은 그들이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大同社會와 이

30) 안병걸, 「퇴계학의 계승양상과 그 연구과제」, 퇴계학 제13집

31) 『溪巖集』卷4, 「擬道內儒生請五賢從祀文廟疏」 “臣等聞道學 爲國家之元氣 聖賢 爲道學之宗主 大哉! 元氣也 人賴是氣以生 國賴是氣以存 是以古之聖帝明王 莫不以培養元氣爲急務 故道學明而人心善 人心善而風俗美 子而知爲孝於父 臣而知爲忠於君 爲儒而知義理王霸之辨 爲下而知恭順服事之禮 維持名教 扶植人紀 自天地生民以來 何莫非道學之由也.”

상적인 인간상이라고 제시하는 聖人에 들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의 修己治人이 선결과제라고 하였다. 그래서 유가에서는 修己治人을 위해 먼저 뜻을 세우는 것, 즉 立志를 중요시하였다. 이것에 대해 朱子도

“배우는 사람은 뜻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른바 志란 어떤 입장을 다른 사람에게 관철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직접 요순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다.” 32)

라고 하였다. 立志는 학자들이 實質的인 학문에 앞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이며, 志란 자신이 학문을 통해 직접 堯舜을 배우려고 결단하는 것으로서의 爲己之學임을 밝히고 있다. 다만 병폐는 학자들이 志가 부족하여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무엇보다도 확고부동한 志가 중요함³³⁾을 이야기 하였다. 계암의 『庭訓筭錄』에는,

하루는 밤에 아버지를 모시고 앉았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玄風 鄭之雲이 말한 ‘학자는 매번 소리 내어 책을 읽을 필요는 없고 뜻을 세워 항상 돈독히 하며 間斷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 라 하였다.” 34)

라고 하였다. 결국 志는 目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짓게 하며 목표달성을 위한 동력을 제공하고 방향을 잃었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指南鐵의 구실을 하기 때문에 독서를 할 때에 방법적인 것보다도 늘 학문을 통한 궁극의 志를 잊지 말고 꾸준히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침을 주었다. 왜냐하면 志가 세워져야 내적수양에 몰두하게 되고, 이어 도덕적 자기완성이

32) 『朱子語類』 권8. 28條目. “學者大要立志 所謂志者 不道將這些意氣去蓋他人 只是直截要學堯舜.”

33) 최광규, 『율곡 이이의 입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34) 一日 夜侍坐 大人曰 玄風鄭之雲云 爲學者 不必每出聲讀書 立志常篤 無時間斷可也.

되어야 다른 사람을 교화할 수 있는 수기치인의 도식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個人的 修道를 위해 志를 살피는 것이 학문의 기본이 됨을 밝히고 『大學』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志란 心이 가는 바이고 定은 한번 정하여 바꾸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志에 定向이 있으면 心이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 是非善惡이 분명해진다. (중략) 志가 定하면 心이 平安해지고, 心이 平安해지면 定이 더욱 견고해진다. 定이란 것은 머무를 바를 아는 것이니 마땅히 머무를 곳에 머무르는 것이다. 성인이 처음 배우는 사람의 덕을 닦는 길을 가르치시되 제일 먼저 타고 난 깨끗한 본성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며 지극히 착한 데에 그치는 것으로 강령을 삼았으니 이것은 모두 백성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높고도 멀어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다. (중략) 志가 定하지 못하면 言行이 맞지 않으며, 처음과 끝이 달라서 털끝만큼의 숨김이 있으면 모두 그 시초를 변하게 하고 지키는 바를 잃게 된다. (중략) 하지만 心은 出入이 있고 志 또한 어찌 間斷이 없겠는가? 이것은 우리 무리가 마땅히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고,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데, 이를 살피는 것은 학문에 기초해야 하며, 그 요체는 『大學』에 있다.³⁵⁾

라고 하였다. 「庭訓箚錄」에서의 설월공의 가르침을 더욱 자세히 하여 立志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학문의 목적인 志가 분명할 때 善惡이 분명해지고 心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결국 『大學』의 三綱領인 明明德, 新民, 止於至善을 위한 선결과제이라고 보고 『大學』을 修身할 수 있는 기본서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大學』은 麗末 권근이 “성현들이 萬歲에 모범을 보인 것으로 수기·치인의 道가 모두 구비되어있다.³⁶⁾” 라 評하여 선

35) 『溪巖集』, 卷5, 「定志齋記」: “夫志者 心之所之也 定者 一定而不移易之謂也. 志有定向 則心無妄動 而是非善惡之當于前. (중략) 吾志定故吾心安 吾心安故吾定益固 所謂定者 知所止而止其所當止也 聖人揭初學入德之門 首以明德新民止至善爲綱 此在民生日用之間 而初非高遠難行之事也. (중략) 志不定則言行不副 終始有殊 一毫釐之微 皆足變其初喪其守. (중략) 雖然 心有出入 志亦豈無間斷 此吾徒之所當戒懼者也. 警省之功 必資於問學 而大學一部書 具載其方.”

36) 권근, 『陽村集』 권33, 「殿試策問題」 “王答曰 大學一書 聖賢所以垂範萬歲 修己治人之道 備焉”

비나 임금이 중요하게 여겼고, 그 이후 조선 중종 때 柳崇祖가 『大學箴』 10조를 지어 더욱 주목하게 되었으며, 16세기에 이르러서는 士林에게는 『大學』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책이 되었다. 예를 들면 南冥 曹植은 “다만 『大學』은 모든 경전의 綱領과 統緒이니 모름지기 『大學』을 읽어 融會貫通하면 다른 經書를 보기가 쉬울 것이다.”³⁷⁾라 하였고 퇴계는 『大學』을 修身의 근본이 되며, 入德의 門이 되는 것으로 학자의 일이라고 하였다.³⁸⁾ 결국 계암이 『大學』을 중요시 한 것은 학문의 목표설정과 그를 위한 마음 수양에 관심을 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權愈는 평소 계암의 학문적 태도를 다음과 같이 言及하였다.

혹 한가히 지낼 때에 아들들이 모시면 반드시 선현의 言行을 말하여 그 뜻을 밝히고 원할만한 것을 닦게 하여 苟且하게 발탁시키지 않았다. 取하고 주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진실로 불가한 것은 털 하나라도 받지 않고 옳은 것은 상자를 기울여 다주어도 근심하지 않았다. 집을 다스림에 기강과 법도가 안팎으로 엄정하고 밝아서 하인이 또한 어기지 못하였다. 방안의 經書와 책은 반드시 정돈하여 조심하고 보호한 후에 손을 씻고 책상을 대하였다. 중년부터는 세상과 끊고 학문을 더욱 오로지하고 道를 더욱 닦아 『주자서절요』를 가장 좋아 하였다. 의심하는 바가 있으면 익숙하도록 다시 음미하고 통달하여 이해하지 않으면 그치지 않아서 뛰어넘거나 외우는 것을 중도에 그만두지 않았다.³⁹⁾

고 하였다. 계암은 늘 先賢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 학문하거나 생활에 늘 법

37) 조식, 『남명집』, 「示松坡子」. “但大學 群經之領 須通讀大學 融會貫通 則看他書便易.”

38) 이황, 『퇴계집』, 권19, 「重答黃仲舉」 “若大學方教人以修己治人之學 舍存心出治之本 而遽及於此 則不幾於倒置 而不切於受容乎”

39) 『溪巖集』卷六「行狀」, 權愈 “或閒居 諸子侍 必歷道先賢言行 以耀明其志 要令修可願 不欲苟營顯遂 取予有度 苟不可者 毫毛無所受 可者 傾匱亦不恤 治家 綱紀條序 明內外嚴正 僮奚亦不敢干主 戒室中經籍必整頓 敬護後之 輒洗手 乃對案 自中年 與世絕 學益專 道益修 最喜朱子書節要 有所疑 熟復玩之 不通解不已 無越踰輟誦”

도가 있었으며, 독서하는 태도도 손을 씻고 방 안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음을 정갈히 하여 대충대충 넘어가지 않고 吟味하고 理解하고 외운다고도 언급하였다. 이렇게 계암과 같은 儒者들은 도학을 사상적 배경으로 학문에 專念하여 내적 수양에 힘쓴 후 治人에 이르게 된다. 학문으로 德을 함양하여 현실정치와 사회에 예민한 관심을 갖고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儒者들의 窮極의 사명이다. 이들은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主役으로 관직에 나아가서는 나라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官僚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들의 出에 대한 選擇이 좌절 될 때 隱居하여서는 後進을 養成하거나 도학적인 素養을 기르기도 하며 道學을 평생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계암도 당시 정국의 당파싸움과 왕의 혼정으로 은거를 선택하였는데, 은거하는 선비에게서 現實參與란 은거를 선택하긴 하였지만 더 나은 사회구현을 위해 백성에 대해 연민을 갖고 백성의 삶이 나아지기를 熱望하고 관심을 보이며, 後進養成을 통해 더 나은 다음 세대를 계획하는 것이다. 선비의 이러한 出處觀은 論語에도 언급되어있다.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고, 어지러운 나라에는 살지 않으며, 天下에 道가 있으면 나타나 벼슬하고, 道가 없으면 숨어야 한다. 나라에 道가 있을 때에 가난하고 또 천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며, 나라에 도가 없을 때에 부하고 귀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⁴⁰⁾

“나라에 道가 있으면 벼슬하고, 나라에 道가 없으면 거두어 속에 감추어 두는 구나!”⁴¹⁾

40) 『論語』, 「泰伯」, “危方不入 亂邦不居 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 危有道 貧且賤焉 恥也 邦無道 富且貴焉 恥也.”

41) 『論語』, 「衛靈公」, “邦有道則仕 邦無道則可卷而懷之”

공자는 선비의 出處와 富貴에 있어서 그 기준은 道이며, 선비는 나라에 道가 있으면 나가서 벼슬하고 道가 없으면 숨어 살면서 자신만이라도 道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백이와 숙제는 나라에 道가 없기 때문에 不仕한 인물이다. 孔子는 이들을 無道한 세상에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그 몸을 욕되게 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평하였고,⁴²⁾ 孟子는 『孟子』 「萬章章句」 下에서 백이는 원리 원칙을 중시한 인물로 불의와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백이는 눈으로 나쁜 빛을 보지 않으며, 귀로 나쁜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섬길만한 군주가 아니면 섬기지 아니하며, 그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아니하여, 세상이 다스려지면 나아가고 혼란하면 물러가서, 나쁜 政事가 나오는 곳과 나쁜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차마 거처하지 못하였으며, 鄉人들과 거처함을 생각하기를 마치 朝服과 朝冠으로 塗炭에 앉은 듯이 여기더니, 紂의 때를 당하여 北海의 가에 거처하면서 천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렸다. 그러므로 伯夷의 風度를 들은 자는 완악한 지아비가 청렴해지고, 나약한 지아비가 立志를 갖게 된다.⁴³⁾”

이 같은 내용을 보면 伯夷는 原理原則에 충실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不義와 타협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계암의 處士의 삶도 백이와 유사하다. 계암은 정치가 紊亂한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더럽혀지지 않도록 물러나 出仕하지 않았다. 게다가 仁祖反正에 대하여 아무리 사나운 임금이라도 백이숙제와 같이 신하된 자가 임금을 바꾸는 것은 不仁이라 보고⁴⁴⁾ 더욱이 그러한 朝廷에 서는 것은 옳지 않다 여겼기에 스

42) 『論語』, 「微子」, “子曰 不降其志 不辱其身 伯夷叔齊與.”

43) 『孟子』, 「萬章章句」 下, “孟子曰伯夷 目不視惡色 耳不聽惡聲 非其君不事 非其民不使 治則進 亂則退 橫政之所出 橫民之所止 不忍居也 思與鄉人處 如以朝衣朝冠 坐於塗炭也 當紂之時 居北海之濱 以待天下之清也 故 聞伯夷之風者 頑夫廉 懦夫有立志”

스로 稱病한 것이다. 그리하여 『肅宗實錄』에서 “광해군 때 昏政에서 벗어나 人倫을 지킨 것, 인조반정 후 義理를 지켜 관직에 나가지 않은 것, 병자호란 후 明을 위해 節義를 지킨 것, 이 세 가지 절의를 지켰다는 의미에서 東方 伯夷로 불린다.” 고 評하였던 것은 매우 적절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在野에 물러난 후에는 私慾을 극복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수양에 힘썼으며 아울러 인간과 자연 세계의 理致를 탐구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그의 학문적 근본은 가문과 지역적 영향으로 道學에 기반을 두고 출발하여 퇴계학문의 영향으로 主理的 측면이 강한 학문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儒者로서의 이상을 펼치고자 벼슬을 시작하였으나, 부득이 사회의 문란함으로 은거를 선택하였고, 은거하는 동안에는 學問과 後進養成에 힘쓰며 자연에서의 수양을 통하여 인간의 참된 본성의 함양에 힘쓰며 儒者로서 충실한 삶을 살았다.

다음은 이러한 학문적 특성이 그의 시세계에 어떠한 문학의식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2. 文學意識

道學의 목표가 自己修養으로 宇宙와 人生의 참 진리와 이치의 깨달음을 통해 유학적 세계관을 이루는데 있다면, 도학문학은 도학적 개념을 내포한 문학으로 작품 속에 도학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작가의 생각이 도학적 이념을 추구한다.⁴⁵⁾ 儒者들에게서 진정한 문학이란 문학을 위한 특별한 노력에 의해서가

44) 『史記』 「伯夷列傳」 司馬遷, 伯夷·叔齊 叩馬而諫曰 父死不葬 爰及干戈 可謂孝乎 以臣弑君 可謂仁乎

45) 김정동, 『大山 李象靖 詩의 유형적 성격과 도학시적 양상』, 경산대학교 대학원, 2002.

아니라 오로지 德行과 學問에 의한 내적인 自己完成에 의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儒者들은 문학은 문학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마음을 지키는 것을 要諦로 생각하였다. 문장을 專攻하는 詞章學을 排擊한 것은 도덕에 근본을 두지 않고 辭藻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며, 수양을 통한 자기완성보다는 文藝로 세상에 자랑하여 출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⁴⁶⁾ 젊었을 때 계암이 초시에는 자주 합격하여도 복시에 자주 낙방하여도 벼슬을 구하려는 생각이 없었던 이유도 학문은 벼슬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 爲己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월당이 詩冊보다는 『心經』을 중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詩는 학자에게 가장 궁극적인 학문 목표는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퇴계가 언급한 “詩가 학자에게 있어서 가장 緊切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경치를 만나고 興을 만나게 되면 詩가 없을 수 없는 것이다.”⁴⁷⁾ 라고 한 것과 같이 儒者는 현실을 바로잡고 세상을 밝히는 일을 위해 聖賢이 보여준 길을 따르는 聖道之學의 달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德行을 닦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文 역시 性情을 다스리는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학문을 중시하면서도 文을 경시하지 않았다. 즉, 시가 가진 효용성을 인정하면서도 文과 學問에 있어서 本末의 구별을 한 것이다. 이것은 先代로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문학관의 계승에 의한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며 당시 과거 급제에만 매달리는 時俗의 학풍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였다.

『書經』에 “玩物喪志”라 하였는데 “玩物을 가지고 희롱거리를 삼게 되면 선비 본래의 참된 의지를 잃게 된다.”는 뜻으로 문예의 공교로움에 치중하는 태도에 대해 경계한 것이다. 권유는 행장에서 계암의 作詩態度에 대하여

46) 임형택,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 비평사, 1997.

47) 『退陶先生言行通錄』卷五, 詩於學者 最非緊切 然遇景致興 不可無詩矣.

선생은 시문을 짓는데 평범하고 속되지 않고 자질구레한 말로 기교를 뽐내거나 자랑하지 않았으나 뛰어난 저절로 일가를 이루었다. 그러나 일찍이 억지로 붓을 잡지 않았으며, 간혹 지은 것은 하고 싶은 말을 나타내는 것으로 만족하였고, 혹 시를 지을 때도 그 뜻을 드러내고자 하였을 뿐 또한 숨씨를 발휘하지는 않았다.⁴⁸⁾

라고 하였으니, 계암이 詩에 대해 전형적인 도학적인 태도를 취한 것을 알 수 있다. 詩는 性情을 즐겁게 하는 것이지만 문예의 공교로움에 치중하여 학자의 본래의 참뜻을 잃게 되는 병폐에 대하여 스스로 경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계암의 문장에 대해 말하기를,

문장을 지움에 맑고 아름다우며 법칙에 맞고 고상하여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고 더욱 시에 심오하여 아득하게 동쪽울타리에서 도연명과 같은 산을 바라보는 취미가 있었으나 갑자년(1624년, 인조2)이후에 다시는 직접 붓을 잡지 않았다. 친구와의 문답도 모두 그만 두었고, 만일 부득이 한 경우에는 또한 반드시 남을 시켰다. 때로 詩를 읊을 때에도 즉흥적 회포를 읊어서 일찍이 초고를 쓰지 않고 입으로만 읊을 뿐이었다. 따라서 저술한 것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드물고 문인, 제자가 보관하여 둔 것을 거두어 모아둔 것이 몇 권이 있을 뿐이다.⁴⁹⁾

라고 하였고, 權愈는 그의 문장을 評하여 “清麗典雅”라 하였다.

작품의 품격은 작가의 개성에 기질이 더해져 정하여지는데 司空圖의 24품에 따르면 典雅는 素美에 속하고, 清麗는 俗濁을 벗어난 맑고 깨끗한 심미특질을 지녔다는 淸의 핵심 개념에 麗함을 지닌다는 말이다.⁵⁰⁾ 퇴계, 陽村을 비

48) 『溪巖集』 卷六「行狀」, 權愈, “先生爲詩文 不凡俗 不爲碎細語鬪巧譁衆 偉然自爲家. 然未嘗強操筆 間有作以足其言 或賦詩依興其志 而亦不出手”

49) 『溪巖集』 卷六「行狀」, 李象靖, “爲文章 清麗典雅 自成一家 尤邃於詩 悠然有東籬見山之趣 而甲子以後 亦不復親翰墨 知舊問答 一切廢閣 如有不得已者 亦必使人. 有時吟哦 卽事詠懷 未嘗屬草 口占而已 故所著述 罕傳於世 門人子弟 收拾藏棄者有若干卷”

50) 최광범, 『고려말 한시 풍격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3.

롯한 사람들이 대부분 典雅하다는 평을 들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는 계암이 조탁의 기교를 부리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가운데 맛이 있고 담박함을 나타내는 것을 추구하였으며, 이는 도학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의 시들 대부분이 經世·人事보다는 자연에 들어서 마음을 수양하며 天理를 노래하는 데 치중하거나 내용이 道學的 思惟를 갖춘 것이 많이 보임은 당연한 일이다.

다음의 계암이 經史를 읽으며 느낀 바를 나타낸 시를 보면서 그의 도학적 문학관이 표출된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三皇開太極	삼황이 태극을 열었던
古時何遼哉?	옛날은 얼마나 먼 가?
天地判上下	천지가 상하로 나뉘고
併人參三才	사람이 삼재에 참여하여
彝倫立紀極	이륜으로 기극을 세우고
星日昭然回	해와 별은 분명하게 회전하니
良性固自發	어진 성품 본디 절로 일어나고
愛親知提孩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 이끌 줄 아네.
相傳只一心	서로 전하여 한마음 되어
扶植欽靈臺.	영대를 흠모하여 도와서 세웠네.
下愚乃獸禽	下愚는 곧 짐승이라
暴棄甘鴛駘	포기하여 게으름을 달게 여기고
唐虞日已遠	요순은 날마다 이미 멀어졌으니
宇宙多風埃.	우주엔 소동이 많네.
邇來十九代	그로부터 19代이니
興廢何其哀?	흥하고 망함을 어찌 슬퍼하리?
晴窗展經史	밝은 창에서 經史를 펴고

萬古心徘徊⁵¹⁾ 太古를 마음으로 배회하네.

1~2구에서는 三皇이 다스렸던 태평했던 시대가 지금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고 먼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구~10구까지는 처음으로 세상이 열렸던 그 당시 인류의 바름과 자연 이치의 바른 운행으로 인해 사람의 心性이 저절로 바르게 되어 백성들의 기강이 바르게 선 세상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11구~16구까지는 그러한 三皇의 시대에 비해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이 어리석어져서 자기를 포기하고 세상도 따라서 어지러워졌다고 말하며 이젠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 인간의 興亡盛衰가 茶飯事가 되어버린 씁쓸함을 말한다. 마지막 두 구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역사를 觀照的인 자세로 바라보고 있다. 堯舜이 다스렸던 시대의 人倫이 바로 서서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시대를 먼저 상상하여보고, 후반부에 대비적으로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뒤의 현재의 인간세상의 변화에 타락한 세상을 관조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렇게 經史의 독서를 통해 人間事의 興亡盛衰의 과정을 보며 교훈을 찾고자 하는 儒者의 자세가 잘 드러나 있다.

다음 시는 계암이 詩經과 中庸에서 언급된 ‘못 물속 물고기 힘차게 뛰고 하늘의 소리개가 의기양양하게 날아다니는 모습’ 처럼 천지자연의 운행 변화를 한가로이 느끼는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

秋空澄廓碧羅寒	가을 하늘 맑고 넓어 차가운 푸른 비단 펼친 듯
返照明村暮色殘	석양에 맑은 마을엔 노을 빛 잦아든다.
澤國微霜蕎麥變	강마을에 잔 서리에 메밀이 시들고
山籬活畫蓼花殷	산울타리엔 그림마냥 여뀌 꽃 풍성하네.
眼中消長閒來認	눈앞의 盛衰는 한가한 중에 알겠으니

51) 『溪巖集生』 卷一, 「閒坐有感走筆」

心上虛靈⁵²⁾靜坐看 마음 속 오묘한 변화 고요히 앉아서 보네.
 多病一生貧亦樂 다병한 일생이라도 가난 또한 즐거우니
 淵明黃菊可堪餐⁵³⁾ 도연명의 누런 국화도 먹을 만하네.

수련에서는 맑은 가을날 석양이 마을을 비추는 풍경을 묘사하였고 함련에서는 가을 풍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기 위해 살짝 내린 서리에 시든 메밀과 가을임에도 아직도 피어 생생한 여뀌꽃을 묘사했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서 경련에서는 계절의 바뀔과 자연의 피고 지는 자연의 섭리의 오묘함을 보며 마음속에서 온갖 이치를 깨닫고 있는 내면의 관조적인 상태를 느낀다. 따라서 결구에서 이러한 깨달음의 순간 때문에 도연명처럼 은거하는 삶도 즐겁다고 하면서 본인의 삶을 은근히 도연명에 빗대고 있다. 이와 같이 계암의 시는 자연을 소재로 하여 裏面에 내재되어 있는 道 또는 天理를 體認함으로써 心性을 陶冶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託物寓懷의 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학적 배경이 그의 문학 작품에 어떠한 樣相으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그의 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2) 明德을 말함. 『大學』: 명덕은 사람이 하늘로부터 얻는 것으로 虛靈不昧 하여 온갖 이치를 구비하고 만사를 수용하는 것이다. 마음에 찌꺼기나 가린 것이 없어 사물을 환히 비추어 본다.

53) 『溪巖集』 卷三, 「秋興」

IV. 溪巖의 詩世界

1. 作品概觀

『溪巖集』에는 총 328題 434首의 시가 남아있다. 『溪巖集』은 1772년(영조42) 가을 禮安 鄉中 선비들이 계암의 德行을 敬慕하여 資金과 工匠을 모아 도산서원에서 간행하기 시작하여 이듬해 3월에 완성하여⁵⁴⁾ 6권 3책의 목판본으로 初刊되었다.

1771년(영조41) 예안의 儒林들이 陶山書院에 모여 議論하였는데,

“易東書院에 배향하자고 하는 선배들의 議論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성대한 예절을 빠뜨렸고 이제 또 서원을 새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이 있어서 後生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기울일 곳이 없어졌으니 오직 遺稿를 刊行하여 영원히 전할 것을 도모하는 일만이 오늘 날 儒林들의 책무이다.⁵⁵⁾”

고 하였다.

卷頭에는 이상정의 서문과 총목이 실려 있고 각 권마다 서두에 목록이 실려 있다. 권1~3은 詩이고 권4,5는 文이며 권6은 부록이다. 권1은 五言古詩와 七言古詩가 각각 49題 56首, 15題 20首가 실려 있고, 권2는 五言律詩 43題 60首와 七言律詩 58題 68首가 실려 있다. 권3은 七言律詩와 五言絶句, 七言絶句가 각각 74題 93首, 11題 12首, 74題 121首가 있으며 그 외 五言排律과 七言排律이 각각 3首와 1首가 있다. 총 328제 434수의 시가

54) 『溪巖集』卷六, 溪巖先生集跋, 「溪巖集識」, 玄孫 金紘

55) 『溪巖集』卷六, 溪巖先生集跋, 「溪巖集識」, 金紘, “易東院祠之追享 已有先輩定論 而尙闕綉儀 今又新設有禁 後學之寓慕無地 惟刊行遺文 以圖不朽 是今日士林之責也”

시의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각 體내에서는 저작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일찍 창작활동을 그만 두었지만 그에 비한다면 시가 많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七言律詩에 가장 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권3에서 주목되는 것은 「哀洪監司元老」로 이하 몇 수가 병자호란 때의 절통한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특히 「有嘆」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원해준 明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데 대한 통분을 나타내고 있다. 권4는 書와 疏인데 書는 매형인 李燦 등 知友와 아들에게 보낸 27편이고, 疏 2편 가운데 한편은 1624년 이괄의 난 평정 후 아들의 이름으로 올린 陳情疏이다. 또 「擬道內儒生請五賢從祀文廟疏」는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 등 5현의 문묘중사를 청하는 내용이나 올리지 않았다. 권5는 祭文, 表箋, 雜著이다. 표전은 대부분 중국의 인물과 史實을 끌어다 작성한 擬表이다. 다만 「擬大司憲金功謝除江陵府使箋」은 1610년 광해군이 생모의 追崇을 종묘의 禮와 같이 하자 김득이 간쟁하니 怒하여 강릉으로 左遷시킨 일을 두고 지은 글이다. 雜著로는 의성에서 결식하며 노모를 봉양한 효자에 대한 「孝子傳」이 있으며 부친인 설월당이 음영하며 노닐던 磐石을 기린 「磐石記」, 계암이 부친에게서 들은 祭禮, 學問, 行動舉止 등에 대한 訓戒인 「庭訓箴錄」이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 권6은 부록으로서 권유와 이광정이 쓴 行狀과 墓碣銘이 있고 이 밖의 文人, 儒者들이 쓴 祭文과 輓詞가 실려 있다. 柳元之의 「與宣城士林書」는 계암을 後漢의 嚴子陵에 比擬하면서 역동서원에 추향하는 일을 상의한 내용이다. 역동서원은 退溪 李滉이 직접 經營하여 처음으로 세우고 尤庵을 모신 곳이다. 卷末에는 계암의 節義를 칭송한 李世澤의 跋文과 간행 경위를 기술한 玄孫 金紘의 跋文이 실려 있다.⁵⁶⁾

56) 『溪巖集』 해제 참조.

2. 作品分析

앞 장에서 생애를 살펴 본 바와 같이 계암은 家門과 지역적 영향으로 철저한 도학적인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으며, 본인의 성향 자체도 외면의 가치보다는 내면의 삶에 더욱 가치를 두는 인물이었다. 따라서 儒家의 가르침을 통하여 자신의 內面을 涵養하고 樂道의 경지로 나아갔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학문관과 세계관을 사회에 적용함으로써 현실을 인식하고 행동하려는 성향이 강하였다. 따라서 그의 삶의 궤적을 고려하여 그의 시세계를 (1)自我省察을 통한 儒者的 面貌, (2)安貧樂道の 隱者的 趣向, (3)批判的 愛民意識, (4)胡亂과 憂國精神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평소 계암이 시를 읽는 것을 탐탐히 여기지 않았으며⁵⁷⁾ 또한 은거하는 동안 해마다 계속되는 官職 除授를 피하기 위한 口實로 稱病하였으니 1624년 병을 稱託한 이후로는 거의 저술을 하지 않아 詩文 若干 만이 문인과 자제들에 의해 간직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가 남긴 작품 중 逸失된 것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점을 수용하면서 그의 시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自我省察을 통한 儒者的 面貌

조선은 유학이 불교를 대신해서 사상사의 주도적인 이념으로 부각되었고, 유학의 이념과 사회적 구조가 조선시대의 정치, 사회, 학술 등 문화 전반을 결정하였다. 유학은 원래부터 강한 현실지향성을 갖는 만큼 그것은 항상 현실정치와 사회에 예민한 관심을 갖고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적

57) 『溪巖集』 卷六, 「庭訓筭錄」 “一日 余覽詩冊 大人責之 使讀心經.”

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유학의 경전은 조선시대 사상을 이끌어 가는 사상의 근원이 되었고, 이러한 경전을 바탕으로 학문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무장하고 조선을 이끌어 가는 지식인층이 바로 선비이다. 맹자는 선비에 대해 말하기를,

제 나라 王子인 塾이 물었다. “선비는 무엇을 일삼아야 합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뜻을 고상히 가져야 한다.” 점이 말하였다. “뜻을 고상히 갖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仁和 義를 행하는 것이다. 죄 없는 사람을 하나라도 죽이면 仁이 아니고, 자기 소유가 아닌데 취하면 義가 아니다. 머물러 살 곳이 어디인가? 仁이 바로 그곳이요,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義가 바로 그 길이다. 仁에 머물고 義를 행한다면 大人의 일이 다 갖추어진 것이다.⁵⁸⁾”

라고 하여 仁과 義를 행하는 것이 선비라고 말하였다. 즉 선비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義이며, 선비정신이란 학문과 덕행을 쌓아 올바른 길로 節義를 지켜 살아가려는 정신이다. 인격의 수양을 통한 도덕적 龜鑑의 提示와 애국 충절과 같은 사회적 기능을 함께 추구하였다. 따라서 선비에게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제시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修己와 治人이 요구되었다. 율곡에 의하면 선비는 修己와 治人, 道德과 政治, 學問과 經世를 겸해야지 修己와 治人 두 가지 중 한 가지 만 부족해도 선비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하였다. 또 博學能文하고 심오한 학문적 철학이 있어도 經世의 능력과 處世의 進退가 분명치 못하면 선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58) 『孟子』, 「盡心章句上」, 王子塾 問曰 士何事 孟子曰 尙志 曰 何謂尙志 曰 仁義而已矣 殺一無罪非仁也 非其有而取之 非義也 居惡在 仁是也 路惡在 義是也 居仁由義 大人之事備矣

나라에 도가 있으면 나가서 벼슬하고 도가 없으면 숨어 살면서 자신만이라도 도를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공자가 말하는 선비인 동시에 儒家의 기본적인 出處觀이었다. 나라에 道가 있을 때 出仕하는 경우가 유가적 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出仕의 태도이지만, 無道한 시대이면서 자신의 능력 또한 그 시대의 문제점을 감당할 역량이 못될 경우 오히려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암도 정치가 문란한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出仕하지 않았다. 節義가 뛰어난 인물로 평생을 선비정신을 실천하며 살았다. 在野에 물러나 私慾을 극복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수양에 힘썼으며 아울러 인간과 자연 세계의 이치를 탐구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 게다가 현실 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던 까닭에 오히려 현실을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고 학문과 수양에 전념하여 세상을 공정한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선비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노력했기에 그를 진정한 선비라 칭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암의 선비정신이 그의 문학 작품에 어떠한 樣相으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그의 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알아보려고 한다.

麻衣誰遣換朝衣	삼베옷을 누가 관복으로 바꾸어 보냈는가?
仙桂香葩照日暉	월계수 향기로운 꽃에 햇빛이 비추이네.
長憶家庭承訓戒	집에서 받은 가르침 오래도록 기억하여
休誇閭里有光輝	영광 있다 마을에 자랑하지 말아야지.
秋風客袂襯紅葉	가을바람 부니 客의 소매에 단풍잎은 떨어지고
絕壑溪聲轉翠微	깊은 계곡엔 시냇물 소리 산기슭엔 수레 소리.
剩想鄉園寒眼待	더욱이 고향에서 눈 시리도록 기다릴 걸 생각하니
靑泥度盡馬如飛 ⁵⁹⁾	푸른 진흙 다 건너뛰어 날아갈 듯 말 달리네.

59) 溪巖先生文集 卷二, 「嶺上次庚戌年韻」

계암은 鄉試에는 합격하였지만 복시에 올라 자주 낙방하였다가 36세 (1612년, 광해군4)에 文科 丙科로 합격하여 權知承文院正字가 되었다. 위의 시는 과거급제를 하고 竹嶺을 넘어 오면서 쓴 시로 34세 布衣였던 당시 쓴 「竹嶺」⁶⁰⁾의 詩에 次韻하였다. 죽령은 조선시대의 선비라면 누구나 과거 급제의 靑雲을 안고 넘던 고개이다. 36세인 지금 같은 장소를 지나며 벼슬에 합격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느낌을 적었다. 급제하여서 기쁘지만 반면 평소 行動舉止를 신중히 하라는 부모의 가르침을 떠 올리고 있는 젊은 선비의 설레임이 드러나는 시이다. 수련에서는 과거에 급제하여 자랑스럽고 늙름한 모습을 읊고 있다. 머리에 꽂은 계수나무에 ‘햇빛 비친다.’는 표현으로 과거에 합격한 영광을 표현하였다. 함련에서는 과거에 급제하여 기쁘지만 한편 가정에서의 가르침을 기억하곤 혹 교만해보일까 조심하는 이중적인 마음을 표현하였다. 경련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풍경을 읊어서 시의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는데, 산 풍경에 대한 묘사이자 동시에 합격의 영광 뒤에 가을을 느끼며 잠시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다. 미련에서는 이러한 여유도 잠깐, 고향에서 눈이 빠지도록 기다릴 가족을 생각하니 진흙 먼지 날리도록 말을 달려 고향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합격의 기쁨과 기쁨을 고향에서 기다리는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담겨있다. 여러 번 낙방하다가 합격 한 기쁨과 그러면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가볍게 처신하지 않으려는 젊은 선비의 희망찬 기대감이 잘 표현되어 있다. 아래 시는 立志의 중요성에 대해 노래한 五言古詩이다. 선비의 지향점을 요순임금에 두어 선비로서의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자 다짐하는 시이다.

士也生世間

선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60) 溪巖先生文集 卷二, 「竹嶺」, 擺落楓枝拂客衣 深秋物色眩晨暉 孤光出海銅鉦掛 萬匹糶山綵錦輝 西望紫霄雲路迴 南臨蒼野郡城微 家園百里殊多思 杳靄初收鳥自飛

所貴在立志	귀히 여기는 바 뜻 세우는 것이라네.
立志若不高	뜻 세움을 높게 갖지 않으면
終爲庸鄙子	마침내 못나고 천한 사람 되네.
方寸被形役	마음이 외물의 부림 당하면
聽命如僕使	명령을 듣는 것이 종놈 같다네.
取捨苦無定	取捨에 정함 없음 괴로울 테고
心口何其異	마음과 말이 어찌 그리 다른가?
滔滔無不然	세상 풍조 그러하지 앓음 없으니
俛仰但增喟	땅을 굽어 하늘을 우러러 한숨만 더할 뿐.
善惡判兩途	선악은 두 길을 판단하는 기준 되고
舜跖分義利	순임금과 도척은 의리, 탐욕을 나누어놓네.
諒非格致功	진실로 사리 연구 공력 아니면
茅塞何由治	사리사욕 갇힌 마음 어찌 다스리랴
君子念在茲	군자 생각 여기에 있어야 하니
莫容斯須貳 ⁶¹⁾	잠시라도 두 마음을 용납지 말라.

선비는 學德之人, 즉 학문을 닦고 德을 닦는 사람이다. 조선의 선비는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主役으로 관직에 나아가서는 나라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관료로서 활동하거나, 隱居하여서는 후진을 양성하거나 도학적인 소양을 기르며 그들이 배웠던 儒學을 실천하였다. 개인적 利害보다는 도덕적 인격을 선택하고 사회적 불의에 항거하거나 국가적 위기에는 義를 실천⁶²⁾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기 때문에 학문을 통해 眞知를 획득하고 그 진실한 앎을 가지고 실생활 속에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이 가능하도록 평생을 수기치인에 힘썼다. 그런데 立志는 학문의 시작과 그 지향처를 설정

61) 『溪巖先生文集』卷一, 「失題」

62) 이장희, 『조선시대 선비연구』, P165~168, 박영사, 1985.

하기 때문에 주자를 비롯한 많은 유학자들이 立志를 중시 하였다.

이 시는 바로 이러한 생각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1~4구에서 선비라면 立志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5~8구에서는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마음이 物慾에 휘둘리게 됨을 말하였다. 본인의 생각이 굳지 못하면 옳고 그름의 판단이 흐려져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물욕에 좌우되어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다. 하지만 9~12구에서처럼 세상은 선악의 기본적 가치 판단조차 불분명하지만 그래도 선악은 모든 행동을 판단하는 불변의 기준이다. 그러므로 13~16구에서는 군자라면 요순임금을 전형으로 삼고 꾸준한 수양을 통하여 잠시라도 立志를 굳게 하려는 생각에서 떠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선비라면 물욕에 가치판단이 흐려진 세상이라도 지속적인 수양을 통하여 세상을 선도할 의무가 있음도 밝히고 있다. 이 시는 사실 58세 때 지어진 시이다. 계암에게서 立志는 학문을 시작할 때에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지만, 어느 정도 학문의 연륜이 있는 노년에도 늘 다짐하고 반성해야하는 요소였던 것이다. 계암의 학문하는 목적은 조선의 어느 선비나 그렇듯이 修己治人이다. 다음 시는 隱居 후 여전히 선비로서의 사명감으로 학문에 열중하고 있는 계암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亭午樹陰濃	한낮이라 나무숲 그늘 짙은데
幽軒澹無事	산 깊은 집이라 일없이 고요하네.
南窗對碧山	남쪽 창은 푸른 산을 향해 나있고
涼颺林杪吹	시원한 바람 가지 끝에 불어오는데
病身稍輕安	병든 몸은 점점 가볍고 편안해져
一枕初罷睡	베갯머리에서 이제 막 잠에서 깨네.
黃卷萬帙繁	오래된 책 만권이나 쌓여있어서
靜坐尋書義	조용히 앉아서 책 읽는다네.

古人我不見	옛 사람은 내가 볼 수 없으니
千載空興喟	천년토록 부질없이 한숨만 쉰다네.
遷善與改過	착한 데로 나아가 허물 고치는 것은
勉勉思欲企	힘쓰고 힘써서 바라는 바
羲農去已久	복희씨 신농씨와는 거리 이미 멀어
宇宙傷憔悴	세상은 상하여 초췌해졌고
蟻垤百年中	개미집 세상에서 백년사는 동안
紛紛雜愚智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어지러이 뒤섞였네.
懷哉歸去來	벼슬길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파
三徑醒還醉 ⁶³⁾	은자의 문 앞에서 깨었다가 취했다가 한다네.

이 시는 49세에 지어진 五言古詩이다. 1구에서 6구는 은거하여 사는 선비의 편안한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난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7구에서 10구는 독서를 통하여 요순이 살던 그 옛날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설정하였으나 만날 수 없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11구에서 16구는 논어와 같은 경전에서 改過遷善의 실천적 사상을 체득하고 현실에서 도학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나 옛날 태평성대와의 거리가 너무 오래되어 어리석음도 혼탁함도 가릴 수 없는 세상에 儒者로서의 사명인 治人을 구현하려해도 道가 실천되지 않는 세상을 안타까워한다. 그래서 마지막 17, 18구는 이러한 사회에서는 도연명처럼 전원으로 돌아와 그의 삶과 정신을 좇아 세상의 어지러움 속에서도 홀로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어야 하기를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음 때도 지혜롭기도 한 평범한 보잘 것 없는 인간이라 은자의 오솔길에서 취했다 깨었다 할 수 밖에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그러나 선비로서 늘 학문에 沈潛하지만 다음 시에서와 같이 문득 생각해보니 벼슬하지 않아 결국은 눈에 보이는

63) 『溪巖先生文集』 卷一, 「夏日」

성과 없이 늙어가는 자신을 깨닫곤 탄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年逾五十愧無聞	오십 넘어 알려진 바 없는 것도 부끄러운데
病裏呻吟暮與昕	병중이라 아침저녁 신음 소리 내고 있다.
放過每嘆消日子	허물 속에 세월만 보내면서 탄식하지만
操存 ⁶⁴)惟在事天君	지키고자 하는 건 오직 마음 다스리는 것.
聖賢遺訓如親炙	성현의 남긴 말씀 직접 가르침 받는 것 같아
鄒魯名鄉欲藉薰	유학으로 이름난 고을 책 향기가 난다네.
燈下披書尋古義	등불 아래 책을 펴고 선현의 뜻 찾고자
蘭膏一點照毫分 ⁶⁵⁾	향내 나는 기름등불로 날날이 비춰보네.

『論語』 「子罕」에 “後生可畏 焉知來者之不如今也 四五十而無聞焉 斯亦不足畏也已” 라는 말이 있다. 수련에서 특별히 오십을 거론한 것은 이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조선의 대부분의 선비가 그러하듯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 不遇한 세상을 만나 은거했지만 계암도 처음에는 修己治人하여 태평한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은 꿈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그렇지 않으니 특별히 이룬 것 없이, 게다가 병든 몸으로 늙어가니 회한이 들 수밖에 없다. 함련에서는 그래도 늘 선비로서의 자세를 잊지 않고 경전 공부를 통해 허물을 고치고 선한 데로 나아가려고 노력하지만 특히 힘쓰는 바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마음은 물론 德을 쌓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세상 經營에 대한 미련을 끊어 버리는 것도 포함 될 것이다. 경련에서는 학문하는 태도가 마치 성현에게 친히 배우는 것처럼 진지한데 이런 분위기는 계암의 근거지가 性理學으로 이름난 禮安이기 때문에 儒學을 배우는 환경이 잘 조성되었을 것이다. 미련은 함련에 대한 방법론이다. 성현에게

64) 操存：操則存 舍則亡 出入無時 莫知其鄉 惟心之謂與”에서 유래. 『孟子 告子上』

65) 『溪巖先生文集』 卷三, 「有感」

직접 배우는 것처럼 하나라도 더 자세히 알기 위해 기름 한 방울로 자세히 비추어 본다며 독서에 몰두하는 모습을 그렸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직은 남아있는 작자의 모습이 엿 보인다. 그러나 다음 두 편의 시는 세상에 대한 갈등이 사라져 한결 마음이 편해진 상태로 사물을 바라보며 느낌은 표현하였다.

草堂秋色淨	초당엔 가을빛 깨끗하고
林嶺夕陽紅	산마루엔 저녁노을이 붉네.
君子生清水	군자가 맑은 물에서 나오니
良朋醉晚風	좋은 벗은 저녁 바람에 취하네.
貪看元自別	탐내어 보는 것은 원래 절로 특별해서니
獨愛與誰同	유독 사랑하는 것 누구와 같은가?
朗詠仍成句	소리 높여 읊어 그대로 시구를 이루니
還愁播海東 ⁶⁶⁾	도리어 해동에 전파될까 근심하네.

초가을 핀 연꽃을 보며 느낀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사물을 주제로 하는 시를 詠物詩라고 한다. 영물시는 사물이 시의 주요소가 되어 주제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작품이다. 주로 사물을 읊지만 단순히 사물을 묘사하는 것에 머물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사물을 통해 작가의 의도가 전달되는 작품이다.⁶⁷⁾ 영물시의 창작의 전통은 詩經에서 비롯되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자네들은 어째서 시를 배우지 않는가? 시는 감흥을 일으킬 수 있고 인정을 볼 수 있으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다. 가까이 부모를 섬기름 일에

66) 『溪巖先生文集』卷二, 「賞荷花 °次琴子開撥韻」

67) 吳景旭, 『歷代詩話』 권67 中

서부터 멀리 임금을 섬기기를 일이 들어 있음을 물론, 새나 짐승과 초목의 이름도 알게 해 준다.⁶⁸⁾”

라고 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물건을 소재로 하여 사물 안에 깃들어 있는 도를 찾아내려하는 것은 인간과 만물에 理가 있다고 생각하는 성리학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따라서 시인에게 시는 감정의 내면세계의 암시인 동시에 시인의 마음을 통해서 반영된 외부세계의 구체화에 있다. 즉 사물과 세계에 대한 통찰을 부각시키는 것을 추구한다.⁶⁹⁾ 주돈이의 <愛蓮說>⁷⁰⁾에서 언급하였듯, 연꽃이라는 사물의 속성 중 더러운 진흙에서 나왔으나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하게 넘글지지도 않으며 맑은 향기가 멀수록 맑은 연꽃만이 가진 차별성을 군자에 비유하여 읊었다. 나아가 계암은 本人을 주돈이에 빗대면서 君子에 잘 어울리는 좋은 친구라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 즉, 자신은 더러운 세상에서도 홀로 깨끗한 꽃을 피워내는 연꽃을 닮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선비라고 은연중에 자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게다가 향기롭고 아름다운 연꽃을 보자니 어느덧 절로 노래가 나오는데 주돈이의 애련설이 너무나 잘되어 그 뒤로는 연꽃에 관한 시를 잘 짓지 않는다는 일설이 있긴 하지만 본인의 愛蓮詩가 해동에 퍼질 것을 근심할 정도로 시에 대한 재능을 자부하고 있음도 드러내는 五言律이다.

다음 詩도 물가에 서있는 소나무의 모습을 보고 그 속성을 사실적으로 잘 드러내고 자신의 志操를 바꾸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선비의 氣象을 복합시켰다.

68) 『論語』 「陽貨」, 小子何莫學夫詩 詩可以興 家以觀 可以群 可以怨 邇之事父 遠之事君 多識於鳥獸草木之名

69) 유약우, 『중국시학』, 서울 명문당, 1994. p.115~123,

70) 水陸草木之花 可愛者甚蕃 晉陶淵明 獨愛菊 自李唐來 世人甚愛牡丹 予獨愛蓮之出淤泥而不染 濯清漣而不妖 中通外直 不蔓不枝 香遠益清 亭亭淨植 可遠觀而不可褻玩焉 予謂菊花之隱逸者也 牡丹花之富貴者也 蓮花之君子者也 噫 菊之愛 陶後鮮有聞 蓮之愛 同予者 何人 牡丹之愛 宜乎衆矣

蒼髯蔭野渡	소나무 그늘 진 시골 나루터
疏影落清泚	맑은 물결에 드문드문 그림자 지네.
孟夏種還榮	초여름이라 씨앗에서 꽃이 피니
妙有元精 ⁷¹⁾ 理	오묘한 精氣의 이치 있네.
童童列成行	무성한 솔잎이 늘어서니
翠蓋舒邈池	푸른 덮개가 비스듬히 펼쳐진 듯.
松下綠蕪平	소나무 아래 무성한 풀 가지런하고
持竿玩流水	낚싯대 가지고 흐르는 물 희롱하네.
淸風奏竽籟	맑은 바람은 피리 부는 듯 하고
白鷺灘上起	백로는 물가에서 날아오르네.
願言勿翦伐	바라건 데 자르거나 베지 말고
堅貞保終始	굳은 정절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게.
從當成老龍	마침내 늙은 용 되면
炎月盡庇此	여름에 이곳을 다 덮고
靈藥千歲存	靈藥은 천년동안 존재하고
仙人亦應至 ⁷²⁾	선인 또한 응당 이르리라.

『論語』 「子罕」에 “해가 추워진 연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뒤에 서 드는 것을 알 수 있다.”⁷³⁾는 말에서처럼 소나무는 예로부터 변함없이 무성한 모습으로 節義를 지키는 선비의 精神을 상징한다. 계암도 초여름 날 시골나루터에 심은 지 얼마 안 된 소나무가 日傘을 받치고 줄지어 서있는 모습에서 자연의 변함없는 이치가 작용한 모습을 꿰뚫어 보고 있다. 우거진 소나무 곁에는 바람이나 백로가 앉았다갈 수 있는 평화로운 정경을 만들어 낸다. 소나무가 잘 자라면 여름날 그늘도 만들어 주고, 소나무 밑에서 자란

71) 元精 : 각 존재마다 하늘로부터 품부 받는 고유의 精氣

72) 『溪巖先生文集』 卷一, 「憶四月松」

73) 『論語』 「子罕」, 子曰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彫也

다는 靈藥도 만들고, 仙人도 이르게 된다. 즉 소나무로 비유된 훌륭한 선비가 많이 등장하게 되면 나라의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게 되고 나아가 버팀목이 되어 그 아래 백성이 편히 생업을 누릴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꿈꾸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仙人으로 비유된 임금이나 聖인이 지조 있는 선비가 많은 朝廷에 이르게 되어 나라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계암이 마음에 그리는 이상적인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짐작할 만하다. 사물을 보고 그 사물에 대하여 시를 쓰더라도 그 속에 숨겨진 속성을 찾아내어 자신의 정신세계를 드러내는 모습에서 계암의 유자적 면모가 잘 드러났다 하겠다. 그래서 이광정은 행장에서 계암의 학문적 태도를 이야기하며 다음 시를 들고 있다.

漸安除舊疾	오랜 병 나아져 점점 편안해지니
雖老勉新功	비록 늙었으나 새로 공부 힘쓰네.
凝坐明窗畔	밝은 창가에 꼼짝 않고 앉아
游心簡冊中 ⁷⁴⁾	책속에 마음을 노닐게 하네.

평생을 지병으로 고생하였으나 늘 변함없이 내면수양에 애쓰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몸이 조금 나아지면 또 학문에 힘쓰고자 하는 모습에서 계암이 얼마나 儒者로서 끊임없는 자기 수양과 학문의 탐구로 성실히 修己治人하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위의 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음 문장에도 잘 드러나 있다.

“계암의 학문은 오로지 내면에서 용심하였고 병질에 걸린 후로는 세상일과 아주 담을 쌓고, 一意涵養하였다. 肅然히 一室 左右에 圖書를 두고 눈감고 端

74) 『溪巖先生文集』卷三, 「偶書」

坐하고 있다가 몸을 돌이켜 體認하였다. 사색하여 득의하는 대로 혼연히 顔面에 나타냈으며 朱子書를 공부하며 더욱 돈독히 하여 沈潛 완역하였다. 의문이 있으면 반드시 쪼개고 들어가 근원의 작은 끝까지 규명하고 이를 실천하였다.⁷⁵⁾”

라고 이광정이 評하였으니 그의 학문적 태도가 어떠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시를 살펴보면 사실 계암은 임전, 유성룡, 김수온 등 不遇하여 뜻이 좌절된 다른 유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은거 생활 속에서도 불평하는 경향의 시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특징을 알게 된다. 이는 隱居를 분명한 명분 아래 본인이 선택한 까닭에 갈등이 적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가 儒者로서의 기본에 충실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세가 시 속에 경전을 통해 선현들의 말씀을 읽고 체득하여 이를 실천하려는 선비로서의 의지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의 은거상황 하에서 쓰인 시들도 모두 이 장에서 살펴본 선비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2) 安貧樂道の 隱者の 趣向

선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出世와 隱居가 바로 그것이다. 治世에는 출세하고 난세에는 은거하는 것은 지식인들의 전형적인 삶의 자세였다. 계암은 그가 살아간 시대를 亂世라고 인식했으며 그

75) 『溪巖先生文集』卷六, 行狀, 이광정 “先生之學 既專用心於內 而引疾之後 屏絕世事 一意涵養 蕭然一室 左右圖書 瞑目端坐 反躬體認 思而有得 則便欣然見於顔面 而於朱子書 用工尤篤 沈潛玩繹 有疑必析 無不究極淵微 實踐而力行之 至其晚年 養益裕而守益固 得日眞而德日邵 嘗有詩曰 ‘漸安除舊疾 雖老勉新功 凝坐明窗畔 游心簡冊中 其所以自樂者’ 可知也”

리하여 자연에서 體得한 도를 더욱 深化하는 삶을 살기로 하여 樂道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樂道란 자신의 마음속에 각인된 道의 實體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體得해 나가는 作業이다. 그러므로 樂道의 시에서 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은 道學 涵養으로 인한 自得과 安貧의 세계이다. 계암은 4년여 간의 관직생활을 제외한 평생을 산림에 살았던 인물이다. 그가 관직생활에 나섰다가 은거를 결심하게 된 과정이 담긴 시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광해군은 즉위 초, 大北派 뿐 아니라 西人과 南人 즉, 당파를 초월해 고르게 인재를 등용해 聯立政權의 성격을 띠고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진 조선을 복구하고 대동법을 실행하는 등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하지만 집권주도세력이지만 소수파로써 주로 三司에 포진해 있던 대북파는 취약한 왕권을 강화한다는 명목아래 다수파인 서인과 남인들을 축출하고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 그리고 광해군 5년(1613) '七庶의 獄'으로 仁穆大妃의 부친 김제남과 永昌大君을 除去한다. 비록 계암이 나라와 임금과 백성에 대한 애정을 가진 관리였으나 이렇듯 당파싸움으로 국정이 늘 혼란스럽게 되자 벼슬에 대한 염증을 서서히 느끼고 있었다.

輕如蟬翼細如羅	가볍기는 매미 날개 같고 가늘기는 비단 같아
誰截雲鬢巧弄梭	탐스런 말갈기 누가 잘라 교묘하게 북 놀렸나?
試著淸風通爽氣	맑은 바람 속 써보니 시원한 기운 통하고
橫看秋水動微波	가을 물 비껴보니 잔물결로 출렁이네.
墊巾何用高名慕	점각건 어찌 높은 명성 기리는데 쓸 것인가?
灑酒唯應醉興多	술을 걸러 오직 취흥 더하는데 응하리라.
投贈蒙君珍重意	내려주신 진중한 그대 뜻을 받자 와서
竹林深處岸吟哦 ⁷⁶⁾	대숲 깊은 이곳에서 오만하게 읊조리네.

76) 『溪巖先生文集』 卷二, 「謝洪亨諸贈馬尾冠」

1613년(광해5)에 선생이 37세 되던 해 承文院副正字로 있을 때에 쓴 시이다. 洪享諸가 말총으로 만든 馬尾冠을 선물한 일을 두고 이에 감사의 마음을 썼다. 섬세하게 짜서 바람도 잘 통하는 이 巾의 모습을 매미날개와 비단에 비유하여 자세하게 묘사하고는 건을 써보고 맑은 물에 비껴보는 모습에서 시인의 才氣가 느껴진다. 이렇게 좋은 巾을 높은 벼슬아치로서의 위엄을 차리는데 쓸 것이 아니라 술 거르고 시 읊조리는데 쓰겠다며 은연중 도연명의 歸去來하고픈 마음도 드러내었다. 이미 벼슬살이를 통해 본 세상에 대한 염증과 갈등이 내비치고 있는 대목이다. 시인으로서의 흥취와 낭만이 잘 느껴지는 七言律詩이다. 다음 시는 세상에 대한 갈등의 양상이 조금씩 내비쳐지는 모습이 보인다.

城門擊柝斷人行	성문에선 야경소리 인적도 끊어져서
遙夜沈沈欲二更	긴긴 밤은 고요하게 이경이 되려는데
萬戶秋生涼露下	집집마다 가을이라 찬 이슬 내려있고
千坊燈映衆星明	온 동네 켜진 등불 별빛 받아 빛이 나네.
朝臣角枕圖名計	조정 대신 빨 베개서 명성 도모 꾀를 내고
商賈牙籌析利營	장사치 주판 툇겨 이익 낼 묘수 짜네.
惟有幽人歸思切	오직 隱者만이 고향 생각 간절하니
絕無他念撓心情 ⁷⁷⁾	딴 생각에 마음 흔들릴 일은 전혀 없다네.

신하의 本分은 백성들과 국가와 임금을 위해 본인의 최선을 다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파악이 되기 시작하면서 계암의 눈에 비친 나라의 권력을 가진 爲政者들은 오히려 자신의 利害를 도모하느라 혈안이었다. 계암의 눈에 비친 대북파와 서인 남인들의 명분 없이 사사로이 政權을

77) 『溪巖先生文集』 卷二, 「初夜」

탐하는 풀은 마치 장사치가 주판알을 튕기며 손익계산 하는 것과 비슷하게 보였다. 이러한 분위기의 조정은 계암에게는 늘 불편하게 느껴졌고, 따라서 마음속엔 이러한 곳을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결심하였으니 그는 딴 마음은 생각나지 않는다 하였다. 이 시를 쓸 무렵 이미 은거할 결심을 한 듯 보인다. 다음 시에서는 계암의 세상에 대한 갈등이 더욱 심화된 양상을 볼 수 있다.

朝昏束帶困塵沙	온종일 띠 두르고 세상일에 시달리니
多病何堪更憶家	병 많은데 어찌 다시 집 생각을 견딜 건가?
客裏年華三月盡	객지에서 봄 맞아서 석 달이 다 되어도
世間岐路萬條斜	세상살이 길림 길은 만 갈래로 굽이굽이.
詩情未爽頻更藁	詩情이 시원하지 않아 자주 글귀 고치고
春恨空深負賞花	봄 시름 만 괜히 깊어 꽃구경도 못하였네.
泉石已期魚鳥伴	자연에서 고기 새와 짝하기로 기약하니
一鞭南邁喜非賒 ⁷⁸⁾	한 번 채찍질에 남쪽 달려가면 기쁨 멀지 않을 텐데.

광해군의昏政과 당쟁으로 혼란한 시기에 성리학적 세계관을 가진 선비의 갈등이 잘 드러난 시이다. 관직생활 몇 개월 만에 세상은 남인 북인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선택을 강요하였을 것이고, 성리학적 이념과는 상관없이 利慾으로 이리저리 얽힌 세상일들에 대한 심경은 ‘세상의 갈림길 만 갈래’라 표현될 정도로 복잡하였을 것이다. 보통의 근심이라면 시를 읊어 마음을 吐露하면 어느 정도 해소되기 마련이지만 경련에서처럼 시름 깊은 마음에는 시를 지을 마음도 봄 구경을 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계암의 갈등 양상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처럼 벼슬살이에서의 생활이

78) 『溪巖先生文集』 卷二, 「書懷」

복잡하면 할수록 고향과 자연에 대한 그리움을 깊어간다. 따라서 마지막 聯에서처럼 고향과 자연이 한번 채찍질로도 다다를 수 있을 정도라고 표현하면서 이미 심리적으로는 고향이 가까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清夜閒談倒肺肝	맑은 밤 담소하며 속마음 털어놓는데
醺然相對不知寒	취해 서로 마주 하니 추운 줄도 모르겠네.
蒼天澹澹月一片	푸른 하늘 고요하게 조각달 걸려있고
末路悠悠事萬端	세상 길 아득하게 만 가지 일뿐이네.
頤養病身須藥力	병든 몸 기르는 것 오로지 약의 힘이요
和平靈府要心寬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은 너그러움 뿐.
但知隨處排塵念	따를 것은 속된 마음 떨칠 줄 아는 거라
糲飯藜羹樂復安 ⁷⁹⁾	현미밥과 명아국도 즐겁고 또 편안하리.

七言律로 이제까지 살핀 시와는 달리 한결 편안해진 작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맑은 달밤 마음에 맞는 친구와 함께 담소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을 잊을 만하다. 마음이 너그럽다면 세상일에 대한 번민과 갈등을 사라지게 할 수 있기에 거친 밥에 나물국도 편안할 수 있다. 도연명의 <飲酒> 중 제5수⁸⁰⁾에서처럼 我와 物의 관계가 주관적 마음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법을 알아가고 있음이 시의 후반부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사는 곳이 번잡한 곳이라도 마음이 그 곳을 떠난다면 이미 마음 밖의 일이 되듯이, 마음먹기에 따라 마음도 평화로워지고 거친 음식도 즐거워진다고 하였다. 陶淵明은 일신의 榮達과 安逸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節概를 위해 관직을 버리고 隱逸을 몸소 실천했다는 점에서 후대 문인들에게 推仰받는다. 혼탁한 현실을 등지고 농촌에서 困窮하게 살았지만 술을

79) 『溪巖先生文集』卷二, 「月下對酌口占」

80) 結廬在人境 而無車馬喧 問君何能爾 心遠地自偏

즐거하고 인생을 즐기며 고결한 인품과 자유를 지켜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상적인 사회상을 그리는 그의 작품에서는 자연스럽고 平澹한 느낌이 묻어난다. 이는 곧은 절개가 아니라면 표현해 낼 수 없는 경지일 것이다. 이 당시 계암은 아직 벼슬에 급제하기 전이지만 벼슬에 대한 갈등 없이 도연명이 즐긴 전원적 삶을 자신의 생활에 투영하고자하였다. 도연명이 利慾的인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田園生活을 하며 自然으로의 회복을 궁극적인 의지로 삼았던 것처럼 계암도 전원생활을 수용하고 즐기려 애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九日天氣清	9월 9일 날씨는 청명하고
秋山紅葉明	가을 산에 단풍잎은 선명하네.
飄寒雁聲疾	찬바람에 기러기 소리 바쁘고
日淡雲容輕	맑은 날 구름은 가볍게 가네.
節物如水流	계절 경관 물처럼 빠르게 흘러
璇極相周行	북극성 별자리 주변을 도네
變衰固其常	변하고 쇠하는 것 항상 그래서
志士良感情	뜻있는 선비 진실로 느낌이 있네.
黃花猶未開	국화는 아직 피지 않았는데
野芳徒紛榮	야생화만 도리어 무성하구나.
病裏抱幽憂	병중에 깊은 시름 끌어안고서
何由餐落英 ⁸¹⁾	무슨 까닭으로 떨어진 국화 먹고 있는가?
籬邊懷靖節	울타리 가서 깨끗한 절개 품고서
千載垂雄名 ⁸²⁾	천년을 씩씩한 이름 드리우리라.

81) 『楚辭·離騷』屈原 “朝飲木蘭之墜露兮 夕餐秋菊之落英”

82) 『溪巖先生文集』卷一, 「九日」

1628년(인조6)인 52세에 지어진 五言古詩이다. 은거하며 깨끗한 절개로 역사에 이름 남기리라는 소망을 적었다. 重陽節은 9월 9일 높은 곳에 올라 국화주를 마시는 명절이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계절에 감상적 양상으로 흐를 수 있는데 이 시에서는 가을의 맑고 선명한 풍경에서 상쾌함이 느껴진다. 문득 한가롭고 무심하게 만물이 자라고 소멸하는 일상에서 天理의 오묘함을 느끼다가 9,10구에서 국화가 매개가 되어 느끼는 바가 있다. 예로부터 국화는 傲霜孤節을 상징한다. 아직은 많은 꽃들이 들판에 어지러이 눈을 현혹시키고 있지만 만물이 스러진 뒤에 돋보일 국화를 생각하며 자신을 국화에 빗대어 자신의 절개를 자부하고 있다. 11,12구에서처럼 屈原의 離騷 중 “아침에는 목란에 떨어지는 이슬 마시고, 저녁에는 가을 국화의 지는 꽃잎을 먹는다.” 를 차용하며 은거하여 국화를 먹고 있는 신세이지만 여전히 임금과 나라에 대한 절개는 역사에 길이 드리우리라는 자부심을 나타내었다. 계암 역시 비록 임금의 뜻을 받들어 除授의 명령을 받들지는 못하지만 임금에 대한 思慕의 마음과 나라에 대한 충성만큼은 굴원에 못지않다고 비유한 것이다. 벼슬은 하지 않지만 깨끗한 절개를 가진 자신의 정신세계를 잘 표현한 시이다.

四時春最好	사계절 중 봄이 가장 좋은 때이니
三月日須遊	삼월에는 날마다 놀이 간다네.
藥餌常爲伴	약과 음식 언제나 짝이 되지만
鶯花久未酬	피꼬리와 꽃은 오래 함께 못하네.
閒吟雖閑寂	한가하게 읊으니 고요하구나.
高臥亦風流	베개 높여 사는 것도 운치 있는 일
邈矣會心者	아득하다. 마음 맞는 사람들을
可從何處求 ⁸³⁾	어디에서 구하여 함께 지낼까?

83) 『溪巖先生文集』 卷二, 「春興三首」 中 1

선생이 58세 되던 (1634, 인조12)에 지어진 五言律로 3首 中 두 번째 首이다. 한가로운 전원생활의 긴장감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전형적인 은자의 생활을 표현하였다. 시어 하나하나에 자연의 평화로움이 그대로 스며있고 한가로움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공자가 ‘仁者는 산을 좋아하고 智者는 물을 좋아한다.’⁸⁴⁾고 했던 것처럼 즉 이들에게서 자연은 心性 修養處이다. 봄이 되어 날마다 경치 좋은 곳으로의 나들이로 하루하루를 自足하며 살아가는 것도 만족스럽지만, 이 좋은 자연 속에서 士人으로서의 自意識을 연마하기 위해 隣近의 名山을 오르면서 맞닥뜨리는 유적지나 景物을 함께 할 知音을 갈구하고 있다. 즉 은자로서의 삶을 함께 할 정신적 동반자를 希求하고 있다. 바로 다음의 시에서 계암의 은자적 삶에 있어서 정신적 동반자 중 한사람인 권상원을 언급하고 있다.

空山雪霽暮霞濃	빈산에 눈이 개어 저녁노을 길은데
蕭瑟寒齋對碧松	소슬하게 추운 서재에서 푸른 솔을 마주보네.
濁酒未妨中散 ⁸⁵⁾ 懶	탁주는 혜강의 게으름에 방해되지 않았고
清風不送退之窮 ⁸⁶⁾	맑은 바람 한퇴지의 궁함 보내려 하지도 않네.
幅巾身世江湖逸	복건 쓴 처지라서 강호에서 편안하고
方寸胸襟宇宙通	한 치의 마음은 우주와 통하였네.
貧賤一生君莫厭	그대 평생 빈천한 것 싫어하지 마시오.
曾聞孤竹餓西峯	백이숙제 수양산서 굶어 죽었다 들었네.

84) 『論語』, 「雍也」 “知者樂水 仁者樂山 智者動 仁者靜 智者樂 仁者壽”

85) 中散 : 中散大夫를 지낸 魏나라의 嵇康. 竹林七賢의 한 사람. 시대가 좋지 않음을 알고 고의로 게으름을 부려 세상에 나가지 않음.

86) 唐 韓愈는 곤궁하여 送窮文에서 “태학에서 4년을 공부하는 동안 아침에는 푸성귀를 먹고 저녁에는 소금국을 먹었다.(太學四年 朝齋暮鹽)” 고 함. 어려운 환경 속에서 뜻을 굽히지 않고 매진할 때의 비유로 쓰임.

寒郊歲暮獨傷麟 ⁸⁷⁾	세모의 추운 들판서 홀로 기린을 상심하는 건
豺虎紛紛盡鞶紳	승냥이 범이 어지러이 벼슬자리 차지해서라.
天地幾經時世變	천지는 몇 번이나 시세 변화 겪었는가?
風塵空老丈夫身	어지러운 세상에서 대장부 헛되이 늙어가네.
龍泉閤匣 ⁸⁸⁾ 無新識	상자 속의 용천검처럼 알아주는 이 없으니
鯨海乘桴 ⁸⁹⁾ 感昔人	큰 바다에 배 띄우려던 옛사람을 생각하네.
安得餐霞 ⁹⁰⁾ 學仙侶	어떻게 하면 아침노을 마시면서 신선 배워서
武陵花裏領千春 ⁹¹⁾	무릉도원 꽃 속에서 천년을 지내볼까?

이 시는 광해군의 昏政이 극에 다다를 무렵인 1620년(광해12) 44세에 권상원에게 준 七言律의 시이다. 權尙遠⁹²⁾은 계암집에 그에게 준 詩가 3편이고 그에 대한 輓詩가 있으며, 계암일록에 자주 기록된 것으로 보아 매우 가까운 사이 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계암일록 丙辰 9月 25일(1616년, 광해군8) 日記에 보면,

87) 叔孫氏의 하인이 기린을 잡아 왔는데, 숙손씨는 그것을 상서롭지 못하다고 여겨 내다 버리게 하고 공자에게 물었다. 공자가 가서 그것을 확인한 뒤에 기린이라고 말하고 “어찌하여 나타났느냐?”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子貢이 그 까닭을 묻자, 공자는 “기린은 明王의 시대에 나타나는 동물인데, 시기가 아닐 때 나타나서 傷害를 입은 것이다. 그래서 상심한 것이다.” 하였다. 『孔子家語 卷4 辯物』
기린은 聖君의 태평 시대에나 나오는 神獸인데, 亂世에 기린을 잡았다[獲麟]는 대목에서 孔子가 『春秋』를 저술하다 絶筆한 고사가 전한다.

88) 경륜을 펴보지 못하는 불우한 신세를 말함. 『晉書 卷36 張華列傳』

89) 乘桴 : 공자가 일찍이 천하에 賢君이 없어 道를 행할 수 없음을 탄식하는 뜻에서 가설적인 말로 이르기를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뗏목을 타고 바다에 떠서 떠나리라. 나를 따를 자는 유인저.[道不行 乘桴浮于海 從我者其由與]” 하자, 子路는 그 말을 진정으로 알아듣고 기뻐하므로, 공자가 다시 이르기를 “유는 용맹을 좋아함은 나보다 더하나, 재물을 취할 데가 없도다.[由也好勇過我 無所取材]” 라고 했던 데서 온 말. 『論語 公治長』

90) 해가 처음 뜨려고 할 때의 적황색의 하늘 기운. 『漢書』 권57下 司馬相如傳에 “봄에는 아침노을의 기운을 마시고, 여름에는 한밤중 북방의 기운을 호흡한다.” 는 말이 나오는데 仙道를 수련하는 법임.

91) 『溪巖先生文集』 卷二, 「次贈權生尙遠」

92) 權尙遠 : 1571(선조4)~? 본관 安東. 자는 遠遊. 호는 白雲子. 機(충재)의 증손. 槩의 庶子. 1630년 사마시 합격.(사마방목에는 신묘(辛卯)1591생으로 40세때 인 仁祖 8년(1630) 庚午 式年試에서 進士에 三等 36위에 입격하였다 기록됨. 또, 계암일록에 보면 백운자를 칭할 때 권군 상원, 또는 권생으로 호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백운자의 생년은 신묘년 1591년이 옳을 듯함.) ‘西谷三絶’ 로 일컬어짐. 詩文에 뛰어남. 『白雲集』 「白雲子傳」(權斗寅 撰)

“저녁에 권상원이 金溪로부터 와서 등잔불을 돋우고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權은 詩文에 총명하여 한번 들으면 마침내 잊지 않았고 문장이 아름답고 고와서 붓을 들면 章句를 이루었다. 山水를 좋아하여 物外에 소요하면서 세상일에 마음을 두지 않았고 貧窮이 몸에 베서 흔들림 없이 구애받지 않았다. 짚신과 헤진 옷으로 하고자 하는 바대로 하여 가는 곳도 구속받지 않았다. 근처의 명산과 큰절인 내연산, 태백산, 부석사, 각화사까지 발자취가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올해 7월 또 학가산에 들어가 몇 개월 동안 깃들여 살더니 지금에야 산을 나와 금계를 지나 이곳에 들른 것은 나를 보기 위함이다. 근래 나를 知音이라 여기니 나 또한 그 사람이 기꺼워 만나면 좋고 시를 논함에 질박하여 반드시 하루 종일에 이르렀다. 세상 사람들은 權이 속세를 벗어났다하여 대체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혹은 그가 오랫동안 가서 돌아오지 않아 오직 승려들과 무리를 이룬다고 의심하니 아, 사람들이 사람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이에 이르렀구나. 이로써 의론이 어두워 서로 맞지 않으니 더욱 탄식 할만하다.93)”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권상원은 아마도 詩文에 능하며 세속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山水를 유람하여 세상에서 꺼리는 인물로, 자신과 義氣가 통하는 사람이라면 이목에 상관없이 교유관계를 맺는 인물인 듯하다. 그러나 계암에게는 하루 종일 質朴한 시를 논하여도 시간가는 줄을 모를 정도로 가까운 인물이다. 1수에서는 권상원을 亂世라 게으름을 부려 벼슬하지 않았던 혜강과 은거하였어도 학문에 힘쓴 한퇴지에 비유하고 있다. 비록 복건 쓴 은사의 처지이나 마음은 우주와 통할 정도의 깊이와 넉넉함을 가졌으니 결코 가난한 것 부끄러워 말라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貧賤으로 말하면 더

93) 『溪巖日錄』, 丙辰 9月 25日. “夕權生尙遠自金溪至 挑燈作話 夜分乃寢 權聰於詩文 一聞終不忘 詞藻齊麗 下筆成章 好山水逍遙物外 不以世事經心 貧窮入骨 介然自若 草履弊衣 惟意所欲 往無拘礙 近地名山巨刹 內延太白浮石覺華 足跡無不到 今年七月 又入鶴駕山 棲遲累月 至是出山 至金溪仍過此 爲見余也 自頃視余爲知音 余亦喜其人 逢之輒款 論詩質白 必至竟日 世人以權之脫然俗物多不悅 或疑其長往不返 惟僧徒是侶 噫人之不好好人至是哉 以是議昏輒不諧 尤可歎”

옥 超越한 사람도 있으니 빈천에도 상관 말라고 격려한다. 백이·숙제는 바로 고죽군의 두 아들로 왕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君·臣의 대의명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주려 죽었다. 이처럼 貧賤은 은자의 삶에서 고려대상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2수에서는 지금은 차가운 겨울인 亂世로 규정하면서, 기린으로 비유된 상원이 明君이 있지 않은 때 나타나 제대로 쓰이지 못한 채 쓸모없이 늙어 감을 안타까워한다. 반대로 승냥이와 범인 亂臣들은 조정의 벼슬을 다 차지하고 있다. 名劍이라도 알아주는 이 없어 상자 안에 간직되어 버려졌으니 나를 알아주는 곳으로 뗏목을 타고 떠나가고도 싶다. 따라서 武陵桃源에 가서 나를 알아주고 나를 써 줄 수 있는 그런 세월과 시대를 기다리고 싶다는 바램이 적힌 시이다. 계암에게 권상원은 바로 자신이 원하는 인간상이다. 아무도 인정하지는 않지만 세속의 利慾에 물들지 않은 훌륭한 사람으로서 백이·숙제에 견줄 만한 인물로 이 사람을 인정하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계암 자신이다. 즉 계암은 권상원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권상원을 알아보는 나아말로 상자 속에 버려진 용천검으로 시대를 잘못 타고난 기린이라고 서로 자부하는 詩라 하겠다.

隆寒微解雨初霽	매서운 추위 조금 풀리고 비 비로소 개이니
冬夜月明清景新	달 밝은 겨울 밤 맑은 경치 새롭네.
諸子相陪聯榻好	여러 아들 책상 곁에 함께 모시고 앉은 것 좋고
病夫閒坐短檠親	병든 아비 한가히 앉아 작은 등잔 친히 하네.
百年天爵 ⁹⁴ 惟知貴	평생토록 하늘 주신 벼슬 귀히 여겼으나
舉世人情最厭貧	온 세상 사람마음 가난 가장 싫어하네.
泉石生涯塵慮少	자연 속의 생활이라 속세 근심 거의 없어
箇中眞境與誰隣 ⁹⁵	이 가운데 진경을 누구와 이웃할까.

94) 『맹자(孟子)』 “仁義와 忠信은 하늘의 벼슬[天爵]이요, 公卿大夫는 사람의 벼슬[人爵]이다.”

95) 『溪巖先生文集』 卷三, 「仲冬初七夜」

초겨울 추위가 조금 누그러진 11월 겨울 밤. 가족들이 한데 모여 앉은 한가로운 일상에서 세상의 온갖 榮利를 超脫함이 느껴진다. 세상의 혼란으로 비록 선비의 뜻을 펼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고요히 지내는 가운데 여러 아들과 聖賢의 글을 읽고 仁義와 忠信을 陶冶하고 집안을 다스리는 일은 단순히 자신의 만족 뿐 아니라 治國平天下의 근본이 된다. 비록 병이 들었어도 책을 가까이 하며 하늘이 내어준 天爵을 귀히 여기며 현재의 은거의 삶을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이렇게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삶 속에서 나만이 느끼는 이 眞景을 함께 할 권상원 같은 知音도 있으니 근심 없는 편안한 은거의 日常에서 隱居自樂하며 安貧樂道하는 계암의 담담하지만 자부심이 드러난 은자의 삶이 느껴진다.

微暑催黃漸著梅	더운 기운 누렇게 매실 열기 재촉하고
竹光輕入碧香杯	대숲은 푸르게 향 술잔에 비쳐드네.
溪棲只合爲漁父	시냇가에 살다보니 어부 되기 딱 좋으나
山飯何能具豹胎	산 밥을 먹는다고 어찌 표범 태를 갖추겠나?
長日小齋心似水	긴 하루 작은 서재 마음은 물과 같고
淸風高枕鼻如雷	맑은 바람 높은 베개 코고는 소리 우레 같네.
簡編幽味無人共	서책의 깊은 맛 함께할 이 하나 없고
林鳥和鳴任去來 ⁹⁶⁾	산새들만 지저귀며 멋대로 오락가락.

이 七言律은 이미 세상 이치에 통달하여 소박하더라도 마음만은 편한 은자의 삶을 읊었다. 儒家에서는 경제적 궁핍에 뜻을 굽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儒家라면 응당 경제적 궁핍을 도덕적 함양의 즐거움으로 이겨나가야 한다고 교육한다. 그러므로 疏食菜羹도 또한 즐거움의 상황

96) 『溪巖先生文集』卷三, 「次唐人夏景韻」

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때의 즐거움이란 가난에 얽매이지 않고 도학적 함양에 매진한 결과로 얻어지는 즐거움이니 孔子의 이른 바 樂道의 경지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베개를 하고 살더라도 즐거움이 또한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 의롭지 않은 부귀는 나에게 있어 뜬 구름과 같다.⁹⁷⁾”

따라서 이미 出에 대한 갈등은 사라진 지 오래이기에 계암은 가난을 커다란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蔬食菜羹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넉넉히 받아들인다. 그 결과 작은 서재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조용한 삶이지만 편안하다. 이미 공자께서 말씀하신 安貧樂道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安貧樂道의 隱者的 趣向을 적은 詩에서는 눈앞에 펼쳐지는 다양한 경물과 대상을 바라보며 또한 그것들을 즐기려는 풍류를 맛 볼 수 있었다. 비록 처음 은거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는 심리적 갈등의 양상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차츰 은거의 삶속에서 만족하며 나중에는 樂道의 경지에 까지 이르는 과정에서는 後悔나 出仕에 대한 동경의 감정이 전혀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계암이 유학자로서의 수양이 잘 되어 있는 사람으로 의리와 명분을 따져 한번 옳다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知行合一을 이루는 인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3) 批判的 愛民意識

일반적으로 유학자들은 天災地變이나 不時的 현상을 대하면 人君에게 政事を 勤愼할 것을 권유한다든가 자신에게 反省을 촉구하는 계기로 삼아왔

97) 『論語』, 「述而15」, 子曰 飯疏食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 如浮雲

다. 이러한 현실적 사실의 형상화는 민중의 고통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노력의 發露라 볼 수 있다. 그래서 儒者가 짓는 詩에는 나라에 대한 백성의 감정을 반영해야 하고 사회악을 고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⁹⁸⁾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 16, 17세기 동안 이삼년을 주기로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가며 찾아 들었고, 게다가 얼마 후 었친 데 덮친 격으로 병자호란마저 뒤이어 일어남으로써 급속하게 경작지가 황폐화되고 심각하게 인구가 감소하였다.⁹⁹⁾ 경작지의 황폐화는 농민의 生活苦를 가중시켜 임란이후 경작면적은 이전에 비해 삼분의 일도 되지 못하였으며, 경상도의 경우 더욱 심하여 육분의 일에 불과하였다. 자연재해의 연속은 이같이 경작지의 황폐화를 촉진시켰을 뿐 아니라 기근과 발병을 만연시켜 급속히 인구를 激滅시켰다. 다음 시는 1613년(광해5)에 계암이 관직에 있을 때 지어진 시로 관리로서 가뭄으로 고생하는 백성들에 대한 憐憫이 잘 드러나는데 당시의 상황을 요약이라도 하는 듯 사실적이다.

六月移苗又此年	올해도 6월에 모를 옮겨 심었는데
年來曠虐每相牽	근래에 혹독한 가뭄이 매년 계속되네.
禹湯罪已其興勃	우와 탕은 제 탓으로 돌려 흥성하였었는데
黎庶吁庚 ¹⁰⁰⁾ 奈倒懸	백성들 굶어 죽기 직전이니 얼마나 괴롭겠나?
涸轍 ¹⁰¹⁾ 少霑眞似鮒	바퀴자국 고인 물에 붓어처럼 다급하고
泥畦初樹已聞蟬	진흙이랑의 어린 나무엔 벌써 매미소리 들리는데
醒然滌洗洪爐焰	큰 불가마 시원하게 불기 씻어 내리도록
一雨千金賴上玄 ¹⁰²⁾	천금 같은 한번 비에 하늘께 감사하네.

98) 유약우, 『중국시학』, 서울 명문당, 1994. p.125

99) 이태진, 『17세기 위기극복과 중계무역의 확대발전』, 『한국사시민강좌』 제9집, 일조각, 1991. p.74,

100)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다는 말. 옛날 춘추 시대 때에 군대의 식량이 다 떨어져 원조를 요청하자. 庚癸라고 부르던 곧바로 응하겠다.[呼曰庚癸則諾]고 대답한 고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庚은 西方으로 곡식을 상징하고 癸는 北方으로 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용했던 隱語. 『春秋左傳 哀公 13年』

101) 涸轍鮒魚 : 『장자(莊子)』 외물(外物)

102) 『溪巖先生文集』 卷二, 「喜雨」

계암집에 癸丑年(1613, 광해5)에 지어진 七言律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임란 이후 잦은 天災地變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을 처절하게 묘사하였다. 매년 6월이면 모내기를 하여야 하는 시기로 올해도 역시 부지런히 모내기는 하였지만 심한 가뭄으로 심은 모는 제대로 자랄 수도 없다. 당연히 백성들의 삶은 거의 물이 없어 죽어가는 붕어마냥 고통스럽게 굶주려 죽어가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는 아랑곳없이 계절은 벌써 한여름이 되니 세상은 더욱 불가마 속인 듯 하고, 가뭄에 아무런 작물도 살 수 없는 빈 논엔 제철 만난 매미소리가 극성스레 가득하니 백성들이 느끼는 암담함이 피부로 느껴질 지경이다. 그런데 마침 불기를 씻어 내릴 만한 반가운 비가 내리니 그 감사함은 말로다 못할 지경이다. 다음 시는 이번 시와는 반대로 水災로 인해 고통 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냈다.

泥柴棲樹枝	진흙범벅 삭정이는 나무에 뒤엉기고
川陸變成海	내와 물이 변하여 바다 되었네.
元氣入積潦	만물기운 큰물에 다 모여들어
崇陰傲眞宰	음기 쌓여 조물주를 업신여기네.
驚心廬舍漂	오두막집 떠다녀 마음 놀라고
瞥眼陵谷改	갑자기 골짜기와 언덕 바뀌네.
崩沙疾掩人	산사태 빠르게 사람 덮치니
避避焉能迨	달아나 피한들 어찌 미치겠는가?
哀彼壓中魂	저 속에 깔린 영혼 슬프겠구나.
初非曠金採	처음부터 광석 캐듯 할 수 없으니.
浸畝水暫除	물에 잠긴 밭은 잠깐 물 빠지겠지만
離披做菹醢	어지러이 흩어진 작물 진흙투성이
新經度田餘	남은 밭을 새로 경작 해보려 해도
造物張戲僞	꼭두각시 벌여 놓은 듯.
征賦從底出	세금 부역 백성에서 나오는데

分作溝中餒	절반은 도랑에서 굶주려있네.
昊穹昭在上	하늘은 위에서 밝게 비추는데
蒼生儻有罪	백성들이 혹시 지은 죄가 있는가?
往歲雖云災	지난해 비록 재앙 있었다하나
今年爲十倍	올해는 열배나 더 혹독하네.
和調古有徵	조화는 예로부터 징조 있어서
歷歷遺事在	역력하게 기록에 남겨져 있네.
弱翁 ¹⁰³⁾ 奏水旱	약옹은 수재 가뭄 아뢰었다니
千秋照光彩 ¹⁰⁴⁾	천년동안 광채가 빛이 나리라.

이 시는 1636년 병자년에 쓰여진 五言古詩로 큰 홍수로 인한 피해로 피해를 입은 농촌과 농민의 암담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이 시와 관련하여 계암이 죽을 때 까지 평생 자신의 일상을 기록한 溪巖日錄¹⁰⁵⁾ 중 丙子年의 일기에도 이러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병자년 5월 18일 새벽부터 큰 비가 오다. 앞 시내가 크게 불어 물이 반석에까지 이르고 비는 더욱 급하게 내린다. 앞산의 아랫부분 역시 잠겼으니 바로 전해의 5월의 물난리와 같다. 전토가 건디기 어려워 사람들이 분주해지니 두 해의 재앙이 앞서 있지 않았던 바이다. 다음날이 기제사인데 지척이 막히고 끊어져 인적이 통하지 않으니...¹⁰⁶⁾

103) 약옹은 漢나라 宣帝 때의 宰相인 魏相의 字. 丙吉과 합심하여 政事를 도와 治績을 많이 남겼다. 御史大夫로 있으면서 권력에 굽히지 않고 직간을 많이 하였으며, 벼슬이 재상에 이르고 高平侯에 봉해졌다.

104) 『溪巖先生文集』 卷一, 「大水書事」

105) 『계암일록』은 김령이 27세인 1603년 7월 1일부터 세상을 떠난 해인 1641년 3월 12일까지 쓴 기록이다. 내용은 ‘봉제사 접빈객’ 등 일상사가 대부분이다. 광해군 치하 대북 정권의 전횡과 훈척세력에 의해 추대된 인조반정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도 보인다. 또 지방관의 가렴으로 인한 민생의 심각성, 향시의 폐단 등에 대한 기록 등, 초야에 은거하면서도 중앙과 지방의 전반적인 시사에 대하여 소상한 기록이 많이 보인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직접 겪었고, 광해군의 난정과 인조반정을 살았던 향촌 사대부의 비판적 사회의식과 아울러 지방 사회 선비의 생활 자세를 알 수 있다.

106) 『溪巖日錄』 下 國사편찬위원회 p.378, 1997. “十八日自曉大雨 前溪大漲 水至磐石而雨益急 前山根亦浸 正如前年五月之水 田土難支 人丁奔走 兩年災 前所未有也 明日忌祭 咫尺阻絕 人迹不通 最以祭所行事爲慮 ”

乙亥年과 丙子年 두해에 걸친 큰 비로 田土가 무너지고 人家가 물에 떠다니고 산사태가 사람을 덮치는 지경에 마을의 사립문 사이로 배를 띄웠더니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1句에서 14句까지는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水災로 인해 온통 뒤죽박죽이 된 상태를 나타내었다. 눈앞에 보이는 어처구니없는 물난리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꼭두각시라도 된 듯 참으로 무력하기만 하다. 15구에서 20구까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살아남은 백성들이 또 앞으로 처해질 상황에 가슴 아파하며 하늘에 대한 원망을 해본다. 그러나 사실 21구에서 마지막까지의 내용에서처럼 天災地變에 관한 기록은 늘 책에 기록된다. 따라서 백성이 겪게 될 어려움을 생각하는 약용 같은 위정자가 있다면 그러한 징후를 기록을 참고하여 미리 대처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위정자들은 백성의 아픔에 대비해주지 못하는 무능함을 가졌기에 이를 원망하면서 한편으로는 내심 계엄 자신이 약용이 되지 못하였다는 책임감을 은연중에 깔고 있는 시이다.

剝松皮剝之何所爲
民命嗚嗚逼於死
亂後餘生遇今歲
通國饑荒無遠邇
官倉私廩糶升斗
火災車薪灑杯水
朝晡計窮無奈何
草木爲糧非得已
持斧腰鎌百爲群
松林逐日紛如市
蒼官反受池魚殃
龍虎變白崩顛裏
脫盡虬皮勞復傷

소나무 껍질 벗기니 껍질 벗겨 무엇 하려나?
백성들 신음하며 거의 죽게 되었네.
난리 후에 남은 목숨 겨우 올해까지 버텼는데
온 나라가 여기저기 기근 들어 황폐하네.
관의 창고 개인 창고 되로 말로 곡식 팔지만
불타는 빨간 수레에 물 한 잔 붓는 격이네.
하루 종일 궁리 다해도 어찌할 방법 없어
초목을 양식 삼는 것 그만 둘 수 없네.
도끼 쥐고 낫을 차고 여럿이 무리를 이루니
소나무 숲 날마다 시장처럼 어지러워
소나무가 도리어 횡액을 만난 격이라
龍虎가 하얗게 변하여 무너지고 넘어지네.
소나무 껍질 모조리 벗겨내니 괴롭고 아파

血化黔膏流十指
 家家布席曬日中
 北里南巷渾如是
 擣焉煮焉蒸可食
 充腹還如粳稻美
 飢腸所迫無不爲
 可憐民窮胡至此
 斯須活命由此物
 樹木陰功猶有被
 世無監門誰畫爾
 世無鄭公誰拯爾
 甲第聞來豈其然
 盤中白粲珠相似¹⁰⁷⁾

피는 검은 기름으로 변하여 열손가락에 흘러
 집집마다 자리 펴고 햇볕에 말리는데
 북쪽마을 남쪽거리가 모두 다 이러하네.
 두드리고 끓이고 찌면 먹을 만하니
 배를 채우는데 도리어 배머처럼 맛이 있다.
 주린 창자 급박하여 못할 게 없으니
 가련하다 백성들 곤궁 어찌 이에 이르렀는가?
 잠깐이라도 목숨 살리는 것 이 때문이니
 나무의 숨은 공을 오히려 입게 되었네.
 세상엔 문지기가 없으니 누가 너희 보호하며
 세상에 정공 없으니 누가 너희를 도울 것 인가?
 큰 집이라고 소문이 나니 어찌 그러한가?
 소반 중 흰 쌀밥이 구슬과 같아서네.

饑饉에 소나무의 껍질을 벗겨내어 그것으로 延命하는 백성들의 실상을 보며 소나무의 은공에 감사하는 詩이다. 전란 후 後遺症이 채 가지지 않아 닦친 한여름의 심한 가뭄은 산하를 타들어가게 하니 간신히 얻어온 양식으로 여전히 연명이 어려울 정도이다. 따라서 굶주린 백성들은 자연히 소나무를 찾는다. 소나무는 사실 선비의 절개를 상징하는 사물이지만, 饑饉 時에는 백성들을 살려주는 恩功도 베푸는 고마운 존재이다. 소나무 껍질을 채취하여 햇볕에 말리고 찌서 먹어 사람들은 살릴 수 있지만, 대신 사람들의 재난은 고스란히 소나무에게도 橫厄으로 전해져 사람목숨을 살리고 벗겨진 껍질 사이로 송진이 흐르는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간다. 작자는 죽어가는 소나무를 보며 그 은공에 대해 감사함과 미안함을 전하며 어찌다가 이렇게 참혹한 현실에 이르렀는지 慨歎하고 있다. 사실 죽어가는 소나무는 위정자의 무능을 나타낸다. 微物인 소나무의 희생을 통해 위정자들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107) 『溪巖先生文集』卷一, 「剝松皮歎」

것이다.

대체로 궁핍한 현실과 饑民에 대한 참상이 주제로 등장하는 시는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 天災地變에 대한 원망이 주로 길게 토로된다. 이 시의 형식은 七言古詩인데 古詩의 형식을 택하는 이유는 비교적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형식으로 시인의 개인적인 울분을 표출하거나 백성의 참혹한 실상에 격앙된 복잡한 심경을 표현하기에 容易한 까닭이다.¹⁰⁸⁾ 특히 조선 후기 18세기 중 후반에는 古詩 양식이 선호되었는데 조선 후기 한문학의 변화와 역사적 의미를 결부시켜 다양한 소재와 민중과 時事를 반영, 시인의 개성적인 면에서 부각되었다. 특히 조선후기 “天氣”와 특별히 관계가 깊다.¹⁰⁹⁾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계암의 古詩는 일상의 체험과 소재의 시적형상화에 대한 사실적이며 질박한 표현으로 개성적인 시를 구현한 것이라 여겨진다.

逋粟鑷除歲幾更	체납 세금 면제하기 한해 몇 번 바뀌더니
一朝嚴令勒民生	하루아침에 엄명이 백성들을 억누르네.
寒洲雁落哀音苦	찬 물가에 내려앉은 기러기 소리 괴롭고
窮轍魚喁困尾鱗 ¹¹⁰⁾	마른 바퀴자국에 오물거리는 물고기 꼬리 붉어졌네.
斗斛雖盈膏血盡	조세 곡식 채웠으나 백성 고혈 다 짜냈고
鞭敲交亂髮膚驚	채찍질 난무 하니 터럭 살갓 모두 놀라
可憐邦本搖縣旆	가련하다 나라 근본 깃발처럼 흔들리니
誰叩天閭滅此征	누가 대궐문 두드려 이 세금 줄여줄까?

里巷蕭條氣象淒 마을 골목 쓸쓸하니 경관도 처연하고

108) 陳伯海, 『당시학의 이해』, 당시의 형식 p.244~309 참고.

109) 이재숙, 『容齋 李荇의 한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110) 尾鱗 : 낚시줄에 걸려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물고기처럼 백성들의 생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곤고해진 것을 말함. 『詩經』, 「周南 汝墳」에 “방어꼬리 붉어지고, 왕실은 불타는 듯. [魴魚鱗尾 王室如燬]”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一邦無告納淤泥	의지 없는 온 나라엔 바칠 것은 진흙 밖에
群生望絕斯須活	절망 속의 백성들 잠시라도 살리자니
九族侵來遠近齊	가족 친지 침략 당함 가깝고 먼 것 다 똑같아
倉粟入雲人怨積	창고 곡식 구름처럼 들어오니 원망 쌓이고
牢囚仆雪哭聲低	감옥 죄수 눈 속에 쓰러지니 곡성이 낮게 들리네.
財民聚散誰輕重	재물과 백성 모였다 흩어지니 어느 것이 중한가?
須念他時悔噬臍 ¹¹¹⁾	훗날 배꼽 물어뜯으며 후회할 것 생각하라. ¹¹²⁾

이 시는 癸亥年(1623,인조1) 州縣의 세금을 蕩滌除滅해 주었다가 다시 命을 내려 還徵한다고 하여 이에 民生이 크게 곤란해 진 사실을 읊은 詩이다. 1수에서는 재해로 인해 수확량이 격감하여 삶이 어려워진 백성들의 세금 체납이 이어지자 감세조치를 취하였으나, 사실 救恤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아닌 까닭에 하루아침에 다시 세금을 착취한다. 겨우 租稅를 채워 내긴 했지만 백성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백성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조정에 알려 백성들을 위로해주길 바라고 있다. 2수에서는 1수에 이어 아무것도 남지 않아 쓸쓸해진 마을과 조세로 걷힌 곡식이 창고에 구름처럼 쌓이고 감옥에는 세금을 내지 못하여 갇힌 죄수가 죽어가는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백성들의 처참한 실상을 고발하며 나라의 근본의 위태로움을 경고하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정묘호란 후 새로운 봄을 맞이하였지만 황폐화된 국토를 보며 착잡해진 심경이 담긴 시이다.

韶華如錦照溪流 비단 같은 봄 빛 흐르는 계곡물에 비치고

111) 噬臍 : 사향노루가 사람에게 잡혀 죽게 될 때에 제 배꼽의 향내 때문이라 하고 배꼽을 물어뜯는다는 말로, 일이 잘못된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말.

112) 『溪巖先生文集』卷三, 「紀事二首」

日午晴絲藹藹浮	한낮의 맑은 햇살 따스함 넘치네.
老憶少時騎竹戲	나이드니 죽마타고 놀던 시절 생각나고
病逢多難對花愁	병든 데다 슬한 고난 꽃만 봐도 수심겹네.
尋眞會入桃源洞	진인 찾아 때 마침 무릉도원 들어가서
攬景思遊杜若洲	경치 보며 두약주서 노닐 생각 해 보는데
鯀域戈矛猶未偃	우리나라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疲民何計事西疇 ¹¹³⁾	지친 백성 서쪽 밭서 무슨 일을 계획하나?

막 전쟁을 마친 후 올해도 변함없이 새봄이 찾아왔다. 하지만 전쟁 뒤 끝에 맞는 봄은 두보의 <春望>¹¹⁴⁾에서처럼 아름다운 계절은 오히려 근심스럽기만 하다. 山河는 모두 파괴되어있고 백성들은 잦은 전쟁으로 불안하고 삶은 힘겹기만 하다. 계암은 당시 은거하는 상황으로 자연 속에서 자기수양에만 침잠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삶은 계암으로 하여금 백성과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게 한다. 계암은 세상과 떨어져 있는 隱者이지만 여전히 세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儒者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난다. 심란한 현실과 예년과 다름없는 자연이 잘 대비되어있고, 전쟁의 현실을 피해 두약주에서 노니는 꿈과 또한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잘 대비된 七言律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계암은 戰亂과 自然災害를 견디어 내며 비록 현실의 조건을 개선시킬 만한 위치와 힘이 없었지만 적어도 詩로서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사실적으로 형상화 하며 백성의 아픔을 살피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생각했던 것 같다. 특히 이번 장에는 古詩의 시 형식으로 쓰여진 시가 많았는데 백성들의 안타까운 삶의 사실적인 고발을 위해서는 古詩라는

113) 『溪巖先生文集』卷三, 「書懷」

114) 《唐詩選》, 國破山河在 城春草木深 感時花濺淚 恨別鳥驚心 烽火連三月 家書抵萬金 白頭搔更短 渾欲不勝簪

비교적 자유로운 시 형식을 빌어 작자의 의도를 자세하고 씩진하게 묘사하고자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4) 胡亂과 憂國精神

선비 중에는 亂이 일어나자 자진하여 의병의 대열에 의탁한 이들이 많았다. 전장에 나갈 수 없었던 이들은 檄文이나 移書를 통해 의병을 격려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활동은 자신들의 향토를 수호해야한다는 생존욕구와 국가가 위난에 處했을 때 수수방관하지 않는다는 선비의 기상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계암이 남긴 시작품 속에서는 전란의 체험과 우국의 서정이 어떻게 녹아들고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虜騎江津逼	오랑캐 말 강나루에 바짝 닥쳐와
朝儀海島寒	조정 위엄 바다 섬서 쓸쓸해졌네.
亂來何日定	난리 닥쳐 어느 날 진정되려나?
事去此時難	나라 일을 저버리기 어려운 때네.
列爵檀公 ¹¹⁵⁾ 走	늘어선 벼슬아치 단공처럼 달아나고
堅城卽墨 ¹¹⁶⁾ 殘	견고한 성곽 중에 즉묵성 만 남았네.
靑丘豈終否	우리나라 어찌 이대로 없어질 건가?
納納老天寬 ¹¹⁷⁾	넓고 넓게 하늘은 너그럽다는데.

이 五言律은 정묘호란이 일어난 1627년(인조5)에 쓰였는데 당시 선생은

115) 단공은 南朝宋 때의 장군 檀道濟를 이르는데, 일찍이 魏나라와 싸우다 불리하자 退軍을 주동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王敬則이 말하기를 “단공의 三十六計 가운데 走가 상책이었다.” 고 한 데서 온 말. 『南齊書 王敬則傳』

116) 춘추전국시대에 燕나라가 齊나라를 점령할 때에 72성 중에 田單이 지키는 卽墨城만이 보전되었다.

117) 『溪巖先生文集』 卷二, 「書事」

51세였다. 정묘호란은 후금이 조선과 명나라의 연결을 경계하여 3만의 군사를 일으켜 우리의 변방을 침략하였으며 그때 인조는 강화로 蒙塵하였다가 후금과 형제의 盟約을 맺고 조공과 官貿易을 조건으로 하여 진정되었다. 1, 2구에서 後金이 쳐 들어와 왕실이 강화도로 옮겨간 급박한 상황을 읊조리고, 3, 4구에서는 은거 중임에도 전쟁으로 인해 벌어질 상황을 염려하여 마음 졸이고 있음을 적었다. 이어 5, 6구에서는 온 나라의 백성이 모두 숨죽여 나라 걱정을 하는 이때에 정작 목숨을 걸고 조정을 지켜야 하는 위정자는 본인들의 목숨 부지를 위해 달아난 行態를 비난하며, 그로 인해 나라를 지키는 보호막이 정말 위태롭게 남아있음을 표현하였다. 그래서 7, 8구에서는 단지 하늘에게 나라의 운명을 걸어 볼 수밖에 없음을 탄식하고 있다. 당파싸움만 일삼던 위정자들의 무능으로 임금이 몽진을 할 수밖에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國運을 위한 대비책을 세우기는커녕 어느새 달아나 본인의 목숨만은 위하는 것을 보며 하늘에 나라의 운명을 걸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과 위정자들의 무능함을 꾸짖는 시이다.

亭亭華表柱 ¹¹⁸⁾	우뚝하니 서있는 화표주여!
借問今何如	물어보세. 지금은 어떠한지를.
人民莫須道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城郭皆爲墟	성곽 모두 빈터가 되어버렸네.
丁仙豈復過	정령위는 어찌 하여 돌아 왔는가?
過必增歎歎	돌아와서 탄식만 거듭했겠지.
巨鎮控中土	큰 요새는 중국 땅을 지켜주고

118) 정령위는 漢의 遼東 사람으로 靈虛山에서 신선술을 배워 신선이 되어 갔다. 후에 학이 되어 遼로 돌아와 성문의 華表柱에 앉았는데, 한 소년이 활로 쏘려 하자 날아올라 이런 노래를 하고 높이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 버렸다 한다. “새가 날아왔으니 이는 정령위라, 집을 떠난 지 천년 만에 지금에야 돌아왔다. 성곽은 전과 같으나 사람들은 예전 사람이 아니구나. 왜 신선을 배우지 않고서 무덤만 늘어 있는가? [有鳥有鳥丁令威 古家千年今始歸 城郭如故人民非 何不學仙家纍纍]” 『搜神後記』

形勝稱方輿	좋은 경치 온 나라에 일컬어지네.
軍容照渤海	군사위용 발해에 두루 비치고
馬色明醫閭	말의 빛깔은 의려산을 밝히고 있네.
朝天路由茲	황제 뵈러 가는 길 예서 부터고
曷野連簪裾	넓은 들판 벼슬아치 연이어 갔네.
藩壤作咽喉	올타리 땅 요새지 되어진지도
二百年有餘	이백년 훨씬 더 지나왔는데
一夕軍民擾	하루 저녁 군대 백성 어지러워져
走散如驅豬	뿔뿔이 흩어지기 몰린 돼지 꼴
屏蔽失金湯	둘러막힌 金城湯池 잃어버리고
陷沒爲穹廬	무너져서 오랑캐 땅 되어버렸네.
鼎魚猶刺擲	술 안 고기 찢리고 내던져지듯
廿載逋誅鋤	스무 해 뿌리 뽑혀 나뉘었네.
榆關節制雄	변방 관문 절도사는 용감하여서
正正勅戎車	정대하게 군대를 다스린다네.
豪俊爲時出	호걸은 시대 위해 태어나는 것
英謀邁穰苴	뛰어난 계책 사마양저 뛰어 넘었다.
妖氛動輒滅	요망한 기운 일어났다 문득 사라져
猛虎當黔驢 ¹¹⁹⁾	맹호는 금주의 나귀 대적하였네.
郅支焉敢逃	질지가 어찌 감히 도망 하리오?
行見擒康居	가다가 강거에서 사로 잡혔네.
河湟快收復	하남과 황강은 시원하게 수복하였고
淮蔡皆驅除	회남과 채주 모두 몰아내었네.
赫赫聖皇怒	빛나는 성황께서 노하셔서

119) 黔驢 : 黔州의 나귀란 뜻으로, 졸렬한 技能을 비유한 말이다. 금주에는 본디 나귀가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귀를 싣고 들어가 그곳 산 밑에 풀어 놓았더니, 호랑이가 처음에는 나귀의 큰 체구와 큰 울음소리로 인해 그를 무서워했으나, 나귀와 점차 가까워진 다음 나귀의 발길에 한 번 채여 보고 나서는, 나귀에게 그 밖의 기능이 없음을 알아차리고 나귀를 물어 죽였다는 고사. 『柳河東集 卷19』

雷霆轟碧虛 천둥 벼락 푸른 하늘 울려 퍼지네.
 東人復爲人 우리나라 사람 다시 사람답게 돼
 貢途當如初¹²⁰⁾ 조공하는 길이 처음과 같아졌다네.

이 시는 61세 되던 丁丑(1637, 인조15)년에 지어진 오언고시 遼陽吟이다. 漢나라 元帝 建昭 2년에 진탕과 甘延壽가 西域 지방의 校尉로 있으면서 황제의 制書를 위조해서 여러 성의 군사를 징발한 다음, 匈奴를 불시에 습격하여 康居를 격파하고 郅支單于를 참수하였는데, 이 공으로 승진한¹²¹⁾ 일이 있었다. 비록 오랑캐를 다루는 데는 오면 막아 내고 물러가면 쫓아가지 않는 법이 있다하니 이들의 행동이 지나침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병자호란으로 급박한 상황이지만 위정자들의 무능과 保身행동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이 난국을 타개할 영웅의 등장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1~6구는 정령위가 왔다가 변한 요동의 모습에 다시 날아간 고사를 인용하여 전쟁으로 요동의 정세가 달라졌음을 적었다. 7~12구는 과거 중국 땅의 요새로서 늠름했던 모습을 그렸다. 13구~20구는 전쟁으로 꺾이고 어지러워진 모습을 대비하여 급박해진 상황을 묘사하고 21구에서 마지막 구 까지는 영웅 姜燕수가 사마양저와 같은 뛰어난 계책으로 별 볼일 없는 오랑캐를 진압하여 평화를 되찾았음을 장쾌하게 적어내고 있다. 전쟁 시국이 과거 요동에서처럼 조선에서도 영웅의 등장으로 단번에 해결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고시라는 자유로운 형식을 이용하여 풀어내었다.

다음 시는 丁丑(1637)년에 쓰인 七言律이다. 1636년 12월은 정묘호란이 일어난 지 10년 만에 淸軍의 침략으로 다시 병자호란이 일어나 일부는 강화로 피난하고 인조는 길이 막혀 남한산성에서 적과 대치하였다. 인조가 남

120) 『溪巖先生文集』 卷一, 「遼陽吟」
 121) 『漢書』 卷70, 「陳湯傳」

한산성에서 보급이 막히고 援軍이 끊어져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은 평양감사 홍명구가 敵과 金化에서 크게 싸우다가 패하여 죽은 일을 전해 듣고 절통한 마음을 표현한 시이다.

孤城援絕黑風馳	외로운 성 원군 끊기고 폭풍은 몰아치니
千里提携赴鬪師	천리 먼 곳 군사 끌고 내달려서 이르렀네.
身死身生人可見	몸이 죽고 사는 것은 사람들이 알 수 있으나
君衣君食子唯知	임금님 옷 잡수시는 것 오직 그대만 아네.
臨危儻得渾如彼	위험에 처해서 혹시 모두 그대 같다면
僨事何由遽至斯	일 그르침 어찌 갑자기 이 지경이겠는가?
英烈眞爲今代一	뛰어난 기개 참으로 지금 세상 제일이고
史書編裏盛名垂 ¹²²⁾	역사책 기록 속에 성대한 이름 남기겠네.

홍명구의 字는 元老로 사람됨이 明敏하고 강직했으며 文行과 器識이 뛰어난 인물로 이른 나이에 甲科의 장원으로 발탁되어 淸要職을 두루 거쳤다. 처음에 홍명구가 賊報를 듣고 慈母城에 들어가 지켰는데, 얼마 뒤에 오랑캐 騎兵이 곧바로 京城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듣고 휘하의 張燠을 보내어 들어가 구원하게 하였다. 그 뒤 車駕가 남한산성에서 포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즉시 자신이 날랜 砲兵 3천 명을 調發하여 먼저 떠나는 한편, 蠟書로 兵使 柳琳에게 동행할 것을 재촉하였다. 그런데 유림이 뒤따라오다가 江東에 이르러 조정의 명령이 없다는 것을 핑계대고 군대의 행진을 저지시키려고 하자, 홍명구가 꾸짖기를,

“군부가 禍亂을 당했으니, 직분 상 목숨을 바쳐야 마땅하다. 더구나 적으로 하여금 군사를 나누어 와서 전투하게 함으로써 남한산성 공격에 전력을 기울

122) 『溪巖先生文集』卷三, 「哀洪監司元老命考」

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계책이다.”

하고, 마침내 진격하니, 前路에 주둔한 적이 도망하였다. 金化에 이르러 적을 만나 싸워 이겼으나 군사를 柏田山으로 옮겼을 때는 적의 형세는 막을 수가 없었다. 이에 홍명구가 유림을 찾았으나 유림이 도망하여 휘하의 將士들이 많이 전사하자 홍명구가 “나는 여기서 죽어야 마땅하다.” 하고 싸우다가 마침내 해를 당하였다.¹²³⁾ 위의 시는 비분강개한 마음이 전편에 흐르고 있다. 수련에서는 홍명구가 御駕가 포위되었다는 소식에 천리 길을 마다않고 임금계신 곳에 이르렀음을 이야기하고 함련에서는 홍명구가 임금에 대한 곡진한 충성심에 임금의 세세한 것까지 마음을 쓰는 충신임을 표현하고는 은연중에 임금님의 곁에 있는 모든 신하들은 모두 쓸모없다고 꾸짖고 있는 것이다. 경련에서는 위정자들의 무능함을 꾸짖으며 미련에서는 홍명구의 기개와 업적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를 마치고 있다. 「遼陽吟」에서처럼 조선에도 이 전쟁 상황을 해결해줄 영웅이 등장하였지만 안타깝게도 홍명구는 전사하고 만다. 이 시는 홍명구의 업적을 찬양함과 동시에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사실 나라가, 임금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까닭은 나라보다는 자신의 安危와 富貴를 먼저 생각한 爲政者의 잘못이라고 분개하고 있다.

二百餘年拱帝闈	이백 여 년 동안 우리나라 도와주고
先皇拯恤被元元	선황들이 구휼하심 백성들이 다 받았네.
一邦再造知誰力	한 나라 다시 살림 누구의 힘이겠는가?

123) 仁祖實錄 34卷, 15年(1637/崇禎10年)1月28日(戊辰)7번째 기사. “平安道觀察使洪命考 與賊大戰于金化 兵敗死之 初 命考聞賊報 入守慈母城 俄聞虜騎直指京城 遣麾下別將張曠等二千騎入援 及聞車駕在南漢被圍 卽自調精砲三千先發 以蠟書 促兵使柳琳俱行 琳追及於江東 以無朝命爲解 欲沮師行 命考責曰: “君父在難 分當效死 況使賊分兵來戰 毋得專力南漢 亦一計也” 遂進擊, 前路屯賊走之 至金化 遇賊斬數百級 奪俘獲人畜以十百數 移軍栢田山 賊合兵萬騎來犯 命考迎擊大敗之 殲其二將 死者相枕 俄而 賊一陣繞出山後 舍馬登岸 氈裹自推 一擁而進 勢不可遏 命考急呼琳相救 琳不應而走 帳下將士 多戰死 命考乃踞胡床 取符印授小吏曰 “吾當死於此” 引弓射賊 身集三矢 自拔之 挺劍擊刺 遂被害”

萬世難忘罔極恩	만세토록 끝없는 은혜를 잊기 어렵네.
大義亘天嗟已歎	하늘 닿은 大義 이미 무너진 것 탄식하고
輿情貫日痛何言	가려진 해 백성 마음 무슨 말로 통탄하라?
須將逢海汪汪水	모름지기 넓고 깊은 바닷물을 만나야만
淨洗靑丘汚鱗痕 ¹²⁴⁾	우리나라 더럽힌 상처 깨끗하게 씻기리라.

이 시는 丁丑(1637)年 지어진 七言律이다. 특히 이 시는 上이 남한산성을 나와 항복하고 청과 君臣之義를 맺게 되자, 임진란 때 우리나라를 다시 살게 해 준 명나라와의 의리를 저버린 데 대한 통분을 나타내고 있다. 조선이 섬겨야 할 종주국인 明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고 오랑캐에게 임금이 머리를 숙이게 된 것은 春秋大義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城下之盟의 수치는 임금인 仁祖 개인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국 만물의 羞恥요 슬픔이다. 따라서 그 치욕은 바닷물이어야만이 씻을 수 있다며 그 당시의 비애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계암은 國難에 임하여 개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인물은 아니었지만 성리학적 세계관을 가진 隱者로서 나라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신분적 한계 속에서 홍명구와 같은 구체적인 忠臣像을 제시하고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함으로써 安民과 국가에 대한 愛情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4) 『溪巖先生文集』卷三, 「有歎」

V. 文學史的 意義

조선 초기는 왕조의 창업에 따라 詩의 議論面을 중시하는 宋詩를 숭상하는 풍조가 강했으나, 조선중기의 정치와 사회적 혼란기에 들어서자 구지배 질서와 통치이념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載道之器 문학의 形式的, 觀念的인 면인 면에 치우친 경향에 대해 반발하는 思潮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시의 함축적 기법을 자연스럽게 전개시킴으로써 시의 吟詠性을 중시하여 인간의 감정을 중시하는 學唐詩人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편 宣祖 年間을 전후하여서는 조선 주자학의 전성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자학의 전성기를 이끈 인물은 바로 士林이며 계암은 士林의 일원이었다. 이들은 道學을 文學의 優位에 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계암의 근거지는 예안으로 이곳의 사람들은 在地土族으로 학연과 통혼으로 얽혀졌으며, 學派的으로는 퇴계 이황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다. 계암의 아버지 김부륜은 퇴계 문하에서 배우고 그 학문적 영향을 그의 아들에게 지대하게 끼친 인물이다. 계암도 퇴계의 門下에서 노닐었으며 아버지와 鄭述 등에게서 배운 퇴계학과 계열의 사람이었다. 이들의 문학은 文以載道論으로 일관 하였다. 16세기에 들어와 徐敬德, 李彦迪, 李滉, 曹植 등의 선구들에 있어서는 悟道の 경지를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說理性的의 강한 詩風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자연의 흥취를 통해 순수한 性情을 표출하는 시풍을 보이기까지 한다.¹²⁵⁾ 당시 계암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퇴계는 도학적 범위 안에서 문학의 效用性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 퇴계는 “文學이란 마음을 바르게 하는데 효용이 있다.” 고 하여 詩作을 심성도야의 한 수단으로 삼았다. 그래서 퇴계

125) 閔丙秀, 「儒家의 詩篇」 『韓國漢詩史』, 太學社, p258, 1997.

는 도학적 사색과 흥취를 시로 표현하여 많은 수의 작품을 남기고 있다.

雪月堂이 『心經』을 중시하였으며 계암 또한 “詩文을 하는데 平凡하고 속되지 않아서 자질구레한 말로 기교를 뽐내거나 자랑하지 않았고 억지로 뜻을 잡지 않았고 간간히 하고 싶은 말을 지을 때도 있었고 혹은 그 흥취에 따라 시를 지었으나 또한 숨씨를 발휘하지 않았다.”¹²⁶⁾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도 역시 문학을 末端으로 인식하는 道本文末의 문학관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에게 시는 道學的 思索과 삶의 양상을 형상화하는 데에 기여할 뿐 다른 의미는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시는 內容面에서 철저히 유가적 세계 속에 局限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계암은 비록 당시 詩文壇이 宋詩崇尚思潮는 물러나고 차츰 唐詩崇尚思潮로 옮겨가는 시기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不遇한 시대를 만나 儒者의 出處觀에 따라 道를 지키며 修身하려는 은거의 생활을 한 까닭에 文集의 많은 주제가 자연과의 교감으로 더욱 자신을 자연의 법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는 내용, 儒家經典을 耽讀하여 理想의 세계를 꿈꾸거나 修身의 과정을 그린 내용,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으로 백성들의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 憂國精神을 내용으로 하는 시가 많다. 또 志操, 立志, 不二心 등 儒者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素養이 문학에 연결되어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그의 시는 도학적 세계의 형상화에 집중되어 감성보다는 이성, 서정보다는 이념이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남긴 漢詩의 형식을 보면 七言詩가 70%정도의 분량을 차지하여 五言詩 보다 월등히 많다. 시행의 길이가 긴 형식의 시를 선호한 이유는 道學的 觀念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좀 더 용이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문학사적 의의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계암은 17세기 초 조선의 혼란

126) 『溪巖集』卷六「行狀」, 權愈, “先生爲詩文 不凡俗 不爲碎細語鬪巧譁衆 偉然自爲家 然未嘗強操筆 間有作以足其言 或賦詩依與其志 而亦不出手”

기에 활동하며 사림의 載道的 文學觀을 계승하여 말단의 재주부리기에 치우친 문예를 반대하였다. 이러한 관점이 문학에도 반영되어 그의 문학의 특징은 진실한 내용을 조리있게 구성하여 素朴하고 平易한 언어로 표현해낸데 있다. 계암은 탁월한 성취를 보인 작가로 부르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그의 문학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시의 주제는 선비로서의 陶冶와 安民과 국가에 대한 愛情이다.

즉 계암의 시문학은 평생을 선비로서 修己에 힘쓰고 은거 중에도 늘 나라와 백성에 대한 염려를 잊지 않는 傾向의 詩를 지음으로써 士林의 社會性을 문학에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높은 관직에 올라 정치적으로 큰 힘을 발휘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은거의 삶 속에서 자기를 다스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려는 모습은 조선을 이어가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발휘되어 조선 중기 한문학사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I. 結 論

지금까지 溪巖 金垞의 『溪巖集』에 실려 있는 시를 바탕으로 그의 시세계를 살펴보았다. 그의 시문학에는 선비로서의 유가적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잠깐이긴 하지만 出仕했을 때나 隱居했을 때 모두 儒者로서, 선비로서, 사회적 책무를 고민하며 살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논의 한 바를 토대로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그가 활동했던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는 정치권의 朋黨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仁祖의 癸亥反正으로 국정이 안정되지 못하였다. 계암이 36세(1612, 광해4)부터 39세(1615, 광해7)까지의 짧은 관직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광해군의 昏政과 당쟁으로 혼란한 시기를 당하여 성리학적 세계관을 가진 계암으로서는 은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암이 42세 되던 해 廢母論이 일어나자 이후 몇 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자라도 時議에 부합하여 이익을 구하는 이와는 교류를 끊었다. 이후 인조반정 이후로는 다시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의 才德을 숨겼고, 친구간의 편지도 사람을 시켜 말로 전하게 할 정도로 자신의 글을 絶筆시켜 버렸다. 즉 계암의 進退는 모두 儒者的 出處觀에 의한 철저한 선비정신의 표출이었다. 이와 같은 계암시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사상적 배경을 고려하여 본문에서는 네 가지 항목으로 시의 특성을 나누어 보았다.

첫 번째로 계암 시문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自我省察을 통한 儒者的 面貌가 드러나는 시를 살펴보고 꾸준히 학문에 침잠하는 선비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杜門不出하여 一意涵養하고 몸소 體認하였으며 思索하고 沈潛玩釋하였던 평소의 학문적 태도와 儒者정신이 그대로 시에 반영되었다. 눈에 띄는

특징으로는 본인이 선택한 은거이기에 不遇한 세상을 만나 쓰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不平의 시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修養이 잘 된 유자의 태도가 시에 반영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安貧樂道의 隱者的 趣向의 시에서는 은거를 결심하게 된 과정이 드러난 시와 은거상황에서 점점 편안함을 찾아가는 모습이 담긴 시를 살펴 보았다. 눈앞에 펼쳐지는 다양한 景物과 대상을 바라보며 또한 그것들을 즐기려는 風流를 맛 볼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안빈낙도하며 사는 隱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批判的 愛民意識의 시에서는 전쟁 후 혼란한 사회 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 은자이나 유자로서 백성의 아픔과 참혹한 실상을 事實的으로 묘사함으로써 隱然中에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을 가하였다. 특히 古詩의 자유로운 시형식을 사용하여 백성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逼真하게 묘사하고자 하였다.

네 번째 胡亂과 憂國精神의 시에서는 전쟁 상황 하에서 나라의 安危를 걱정하는 유자의 사회적 면모가 드러나는 시를 살펴보았다. 홍명구와 같은 구체적 충신상을 제시하거나,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위정자들의 무능과 무책임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함으로써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당시 나라의 위급함에 대한 鬱憤과 憂國精神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계암은 철저히 稱病하며 세상에 숨어 살아 개인의 시적 재능을 숨기려 했지만 그의 家風을 생각할 때 선비로서, 유교 사회의 지식인으로서의 책무성이 자연스레 몸에 체득되어 나타난 시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따라서 이러한 성향을 가진 계암에 대해 諸家들은 “배움은 周濂溪에 근원한다.” 혹은 “陶山 李滉의 높은 品格이 다시 여기에 있다.” 또 “동해의 魯仲連, 北窓의 陶淵明, 伯夷叔齊와 같다.¹²⁷⁾” 라고

評하였다. 특히 은나라를 무너뜨리자 仁義를 저버렸다고 생각하여 首陽山에 들어가 餓死한 伯夷와 叔齊의 삶에 비유하였다. 즉 이들처럼 철저한 은거의 삶을 하였지만 도학적 인성 함양과 사회적 實踐을 통해 조선시대의 도학발전에 一助를 하였다고 評할 수 있으며, 그의 시문학은 철저한 도학관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의 문학사적 의의는 宋詩崇尚思潮에서 차츰 唐詩崇尚思潮로 옮겨가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선비로서의 陶冶와 安民과 국가에 대한 愛情을 시문학에 나타냄으로써 조선중기의 한문학사적 위치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7) 『溪巖集』卷六「行狀」, 李光庭 “一時先輩之挽先生者 或稱學泝溪源 或稱陶山高風復在茲 或以魯連之東海 靖節之北窗 竝與夷齊稱焉”

參 考 文 獻

1. 基本資料

金垞, 『溪巖集』, 민족문화추진회, 1992.

金垞, 『溪巖日錄』 上, 下, 국사편찬위원회, 1997.

조식, 『남명집』

權尙遠, 『白雲集』

柳宗元, 『柳河東集』

『孔子家語』

『南齊書』

『論語』

『唐詩選』

『大學』

『孟子』

『史記』

『宋書』

『詩經』

『純祖實錄』

『肅宗實錄』

『仁祖實錄』

『莊子 田子方』

『朱子語類』

『晉書』
『春秋左傳』
『楚辭·離騷』
『택리지』
『退溪集』
『漢書』

2. 著書類

- 전중서, 『談藝錄』
胡震翼, 『唐詩研究(上,下)』, 臺灣商務印書館, 民國76.
陳佰海(李鍾振 譯), 『당시학의 이해』, 사람과 책, 2001.
閔丙秀, 「儒家의 詩篇」 『韓國漢詩史』, 太學社, 1997.
권문봉, 「傳統的 선비정신에 대한 一考察」, 한문교육연구 제23호, 2003.
吳景旭, 『歷代詩話』 권67 中
閔丙秀, 「儒家의 詩篇」 『韓國漢詩史』, 太學社, p258, 1997.
이장희, 『조선시대 선비연구』, 박영사, 1985.
전형대의, 「朝鮮中期的 詩學」, 『韓國古典詩學史』, 기린원, 1981.
金台俊, 『朝鮮漢文學史』, 朝鮮語文學會, 1931.
유약우, 『중국시학』, 서울 명문당, 1994.
퇴계연구소, 「陶山及門諸賢錄의 집성과 간행과정」, 『퇴계학맥의 지역적 전개』, 보고사, 2004.
임형택,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 비평사, 1997.
이태진, 『17세기 위기 극복과 중계무역의 확대발전』, 제 9집, 일조각, 1991.

3. 論文

- 황패강, 『溪巖 金垓의 삶과 文學』, 퇴계학과 한국문화, 2001.
- 황패강, 『溪巖 金垓의 人間과 文學』, 퇴계학연구, 2001.
- 나민정, 『괴애 김수온의 문학의식과 시세계』, 성신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최광범, 『고려말 한시 풍격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남은경, 『東溟 鄭斗卿 문학의 연구』, 이화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金汀東, 『大山 李象靖 詩의 類型的性格과 道學詩의 樣相』, 경산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혜원, 『명고 임전의 시세계 연구』, 성신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조민경, 『서애 유성룡의 시문학 연구』, 성신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한재, 『아계 이산해의 시 연구』, 공주대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 이재숙, 『容齋 李荇의 한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 이순선, 『訥齋 崔暉의 우국애민의식과 시세계』, 안동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선희, 『의리사상을 중심으로 본 선비정신』, 한국교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순희, 『荷潭 金時讓의 시세계 연구』, 단국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구본섭, 『한강 정구의 도학적 시세계』, 경북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곽상규, 『17세기 초 처사문학연구』, 안동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손혜영, 『도연명의 생애 및 작품연구』, 성균관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 최광규, 『율곡 이이의 立志에 관한 연구』, 연세대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6.
- 안병걸, 「퇴계학의 계승양상과 그 연구과제」, 퇴계학 제13집
- 오석원, 『퇴계학과의 형성과 전개』, 동양철학연구 제7집

강정화, 『16세기 遺逸文學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이종진, 『16세기 사림과문학의 연구』,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정지용, 『17세기 전기 무등산권 한시연구』, 전남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ABSTRACT

A Study on the Poem Literature of Kyeam, Kim, Ryoung

Lee, Kyung Mee

Dept. of Chinese Classic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Kyeam, Kim, Ryoung is a literary man in the middle of Chosun who lived from 1577 to 1641. In those days, public welfare was reduced to the greatest misery due to the faction of political circle and national crisis such as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Manchu war of 1636 etc., and also national administration failed to be stabilized due to reforming the government by deposing the king in Kyehe by Injo. Nevertheless, people met harmonious prosperous age literarily and golden age ethically before and after the course of a year of Sunjo, and literary world of poem was passing through the point of time of turning point to change from the style of Sung poem to the style of Dang poem.

Kim, Ryoung tried to realize the mission of moralist in society, as he became a pupil of moral philosophy from childhood by the influence of family including his father, Sulwoldang, Kim, Boo Yoon who was a disciple of Toigye, Lee, Hwang. But, he came to lead the life as a scholar by completing short official post life and choosing retirement

due to then confused period situation. But, in the course of retirement, he was faithful to cultivating body and ruling over people as a scholar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Confucian scholar.

In literature, he didn't despise literature completely but he laid moral philosophy on high position on the basis of view of learning of moral philosophy.

Then, while he recognized effect that poem has, he made distinction between cause and effect in poetry and prose and learning. As for poem literature of Kyeam which is evaluated clear and nice and elegant, he composed poem depending on things and entrusting thought to something by observing surrounding things.

In this thesis, this researcher examined the whole of his poem world closely after classifying into poems of (1) aspect of Confucian scholar through self-examination, (2) taste of hermit scholar that he is content amid poverty and taking delight in the Taoist, (3) critical consciousness to love people, (4) Manchu war and patriotism spirit by analyzing the poem world of Kyeam.

It can be commented that learning of Kyeam was a help to the development of moral philosophy of Chosun period, and it seemed that he could not help composing the poems which appeared by mastering the responsibility naturally as a scholar and as an intellectual of Confucian society. Thus, his poem literature is result which appeared by the reflection of thorough view of moral philosophy. And, it can be said that meaning of history of his literature is that he is occupying

the position which should not be overlooked in the stream of Chinese literature history in the middle of Chosun, as he showed moral nature cultivation, well-being of people, and love for nation in poem literature as a literary man to have Confucian scholar aspect and a scholar. Thus, this researcher tries to make offering the opportunity to be able to illuminate the poem world of Kim, Ryoung which failed to be concentrated in the meantime again as the opportunity that the position of Chinese literature for his poem work is lifted.